

한려수도 일출명소 '삼천포대교 해맞이축제' 새해 아침 3만 여명이 찾아, 어시장도 대성황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새해희망을 기원하는 모듬북 공연뒤로 새해가 솟아 오르고 있다.

사천시(시장 김수영)가 戊子年(무자년) 새해를 맞아 1일 개최한 '2008 삼천포대교 해맞이 축제'에 3만 여명의 인파가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에 따라 5회째로 맞은 해맞이 축제는 청정해역 한려수도의 일출 명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축제는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한려수도의 중심지와 자연산 활어회 집산지라는 지리적 장점을 살린데다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대상'으로 선정된 삼천포대교에서 열려 이곳을 찾은 3만 여명의 시민과 관광객의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특히 축제에 시민과 관광객들이 대거 참가함으로써 숙박업소는 행사 전에 이미 예약 만료됐으며, 인근 음식점에는 손님들로 줄을 잇는 등 축제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 이상을 나타냈다.

이는 고유가, 환율상승 등으로 인한경기적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활성화에 기여해 모처럼 상인들에게 환한 미소를 짓게 했다.

또한 시민들은 올 한해가 오늘 만큼만 되기를 희망하며, 붉게 용솟음치는 해처럼 가정과 사천시의 도약을 기원했다.

특히 올해에는 그동안 잊고만 있었던 소중한 사람에게 정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엽서와 편지' 1만3000개를 농업 사천시지부에서 협찬함으로써 해맞이 행사에 참여한 시민과 관광객들이 그동안 잊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새해 덕담을 전하는 '사랑의 엽서 보내기'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에게 호평을 받았다.

또 여명을 밝히는 신년 축포,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 새해에는 많은 행운을 오기를 기원하는 1만3000개 '행운의 열쇠'를 나눠주기, 전통 민속놀이인 '소망 연 날리기'도 마련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365개의 연이 이어진 연날리기와 소원과 송액 연복(送厄年福: 액은 보내고 일

년 내내 복을 받는다는 뜻)을 열원하는 대형 연을 하늘에 올려 보내어, 12만 사천시민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했다. 이와 더불어 '출장 리포터' 코너를 마련, 시민과 관광객을 현지에서 인터뷰하고, 행사장에서 먼 각산 봉화대에 오른 관광객과는 무선기로 연결, 접촉함으로써 현장감과 생동감을 살려 호응이 좋았다.

사천시새마을회회는 관내 BAT업체의 협찬을 받아 무려 1만3000인분의 소망 떡국을 무료로 제공해 참석한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사천시민의 따뜻한 정을 새삼 느끼게 했다. 또한 행사장 주변에서는 사천여성소방대와 사천시대방동 큰고을 고향회에서 따뜻한 차를 제공해 차가운 날씨를 훈훈한 정으로 녹이기도 했다.

한편 김수영 시장은 새해 메시지를 통해 "12만 시민의 안녕과 축복을 기원했으며, 수많은 자원봉사자의 힘으로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치를 수 있었다"며 '내년에는 보다 나은 축제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축제에 적극 참여해 준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시장 신년사(요지)]

존경하는 12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직원 여러분!

희망찬 무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아침을 맞아 사천시의 발전과 번영, 그리고 시민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리는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시는 12만 시민여러분의 단합된 힘과 850여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오랜 숙원이던 통합 신청사를 개칭함으로써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구심점을 마련하게 되었고, 항공우주산업과 해양관광문화가 어우러진 활기찬 도시 기반구축을 착실하게 다지는 등 시정 전반에도 많은 변화와 일관성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사천시의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가져 발전하는 무자년 한해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첫째, 통합 신청사를 구심점으로 사천시 발전과 도약의 계기로 삼아 균형 있고 조화로운 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청사를 중심으로 49만2천여㎡의 면적에 택지와 편익시설 그리고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8천여명을 수용하게 될 신도시를 중심축으로 삼아 새롭게 도약하는 살기 좋은 사천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는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공단이 없으면 불가능 하므로 공단조성과 기업투자 유치를 더욱 확대 해 나가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해

첨단항공우주산업 육성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실현 골고루 잘 사는 복지사회 건설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항공·우주산업과 조선·해양·수산·관광산업이 특색 있고 조화롭게 발전되어 지역경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서부시장과 삼천포종합시장의 주차장 설치와 삼천포중앙시장과 사천읍시장의 비가림 시설 등에 25억원을 투자해 재래시장의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특색 있는 문화·예술·체육·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향상시켜 도시브랜드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급년에는 대통령기 태권도대회, 전국씨름대회, 전국복싱대회 등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개최 할 예정이며, 약 1만여명의 선수와 가족들이 우리시를 찾게 될 것입니다.

관광분야 또한 사천만남의 관광 휴게시설 건립과 남알대 유원지, 실안과 비토 관광지 개발에 더욱 매진하여 관광도시 기반을 차분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농·축·수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최선의 지원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국가간의 무역은 FTA 체결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를 거듭할수록 외국 농산물의 수입 개방으로 우리 농·축산업은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FTA 극복을 위한 농가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잘 사는 복지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급년에는 복지분야 예산이 작년보다 30% 늘어난 668억원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자활

지원 등 사랑과 희망을 주는 복지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경로당 신축, 노인요양시설과 복지회관 운영,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노인 복지 서비스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아동 양육시설 확충과 아동급식비 지원 등 아동에 대한 복지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건전한 청소년수련장을 위하여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청소년 편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아동·청소년을 미래의 주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생활공간을 위하여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가꾸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급년 3월에 개소 예정인 통합보건소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수립해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사천읍과 동서읍 등에 보건지소 개설과 노후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각 2개소를 신축해 시민 의료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미래지향적인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시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020년을 목표로 수립한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미래지향적인 도시 인프라를 구축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의 대동맥인 국도 3호선과 33호선 4차로 확장 사업을 조속히 완료해 더욱 탄탄한 도시발전의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직원 여러분! 우리 모두 다함께 손잡고 뜻을 모아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사천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며 신년 인사를 거듭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천시 브랜드슬로건 응용시스템 개발 완료

사천시는 시를 널리 알리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천시 브랜드슬로건 디자인을 선정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응용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사천시는 브랜드 슬로건으로 'Rising Sacheon, 라이징 사천'을 정하고 브랜드 슬로건에 적합한 디자인 선정을 위해 디자인 전문 업체에서 개발한 여러 디자인 중에서 수차례의 심의회와 시민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 결정

했다.

사천시 브랜드슬로건 디자인이 시의 이미지와 부합되고 브랜드 슬로건과 어울리는 최적의 디자인을 선정하기 위해 디자인 전공 교수, 민간전문가,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심의회와 시민 선호도 조사에서 나타난 의견을 참고해 개별 심사를 실시했다. 시민 선호도 조사에서 최고의 선호도를 보인 디자인이 심의회에서도 최고점수를 얻어 사

천시 브랜드슬로건 디자인으로 결정됐다.

사천시 브랜드슬로건 및 디자인은 아래와 같다.

사천시 브랜드슬로건	의미
	<p>■ Rising Sacheon : 라이징 사천은 항공기와 우주선의 비상을 표현하며,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도시의 모습과 개발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을 지닌 사천이 "항공우주 및 해양관광도시"로서 비상하는 이미지와 새롭게 떠오르는 도시 "사천"을 표현함</p>

시는 이번에 결정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각종 업무와 각종대회·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응용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사천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널리 사용할 계획이다.



謹賀新年

무자년(戊子年) 새해 시민 여러분의 차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첫 사천아카데미 제25강 개최

혁신과 변화에 대응하고 새롭고 신선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활기찬 사천시를 열어가기 위한 새해 첫 사천아카데미 강의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무자년 새해 오는 1월17일 오후 2시부터 시청 대강당(민원동

2층)에서 기상청 예보관을 역임한 김동완씨를 초청해 날씨와 생활에 관해 진솔한 강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동완 기상 캐스터는 1959년 중앙 관상대 기상 요원으로 입사했다가 1980년대, 1990년대 사이에 MBC 기상 캐스터로 활동해 많은 국민들에게 가장 유명한 기상 캐스터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강의에서 김씨는 현대사회가 모든 분야가 좀 더 세분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일

반적인 날씨의 영향력인 출다, 덥다, 폭우, 폭풍, 폭설 등 물리적인 것을 벗어나 현대인들의 정신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재미있게 풀어내갈 예정이다. 또한 날씨와 산업, 날씨와 건강, 날씨와 스포츠, 날씨와 레저 등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날씨 정보는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자세한 예와 더불어 시민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선사할 예정이다.

날씨와 더불어 약 50년의 세월을 같이해오고 있는 기상전문가 김동완 전 예보관을 직접 만나 날씨와 생활에 대한 시원한 강의를 만나보기 바란다. 저서로는 1998년 '날씨 때문에 속상하지요?'가 있다. 참고사항 : 2·3월에는 국회의원 선거(4월 9일) 60일전으로 아카데미를 개최하지 않고 4월 17일(목)일부터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2007년도 사천시 기관평가 수상현황

사천시는 중앙부처 또는 경남도에서 실시하는 기관평가에 많은 상을 수상했다. 이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민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시정에 적극 협조한 결과이다.

사천시가 2007년도에 수상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수상현황(26개 수상)

평가구분	평가구명	평가관	평가결과
중앙	2007년도 통계조사 유공기관	통계청	유공기관 표창
	2006정보화마을 운영 (정동고읍간장정보화마을)	행정자치부	우수
	2007균형발전 우수지자체 평가	행정자치부	최우수
	지방행정혁신 평가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장관표창 특별교부세 1억8000만원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전국콘테스트(우천마을)	행정자치부	동상
	2007소하천정비사업	소방방재청	최우수
	2007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산림청	우수
	유형별 우수농업기술센터 평가 (고품질 쌀 생산 분야)	농촌진흥청	장려 상사범비 1억원
	타타이스 생산단지 평가	농촌진흥청	우수
	2007년도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유통대책 추진평가 (논공 부문, 생산단지 평가)	농림부	장려
	공무원 정보화능력 평가	경상남도	최우수
	2007년 경상남도 혁신경진대회	경상남도	장려(행정투명성분야)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도 콘테스트(우천마을)	경상남도	동상
	2006년도 깨끗한 환경 경남가꾸기	경상남도	우수 상사범비 1500만원
2007년도 민원행정 종합평가	경상남도	장려(시부 3위)	
2007장비기 지방물가관리평가	경상남도	장려(시부 3위)	
도	건축행정 내실화	경상남도	최우수
	2007소하천정비사업	경상남도	최우수
	2007제1대유안안전한국훈련	경상남도	최우수
	2007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경상남도	최우수
	2006년 농수산물 수출확대 실적 평가	농산물부문 : 경상남도 수산물부문	수출탑 - 칠백만불탑 : 서강유역(주) - 일백만불탑 : 경남무역 - 오십만불탑 : 정동농협등 조합, (주)다음 발전상 상사범비 15백만원
	적십자회비 모금	대한적십자사	시부 2위
	대한관광경영대상	대한관광경영학회	대상
	혁신관광 진흥정책 대상	한국관광연구원	대상
	제23회 부산건축대전	(사)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Best 원공건축물

2008 새해영농교육에 다함께 참여합시다!

사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영)는 1월8일부터 1월30일까지 24개소 교육장에서 13개 작목에 대상으로 163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새소득작목 기술보급과 농업인 의식변화를 위한 맞춤형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품목별 연구회 및 읍면으로부터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농업인의 필요에 의한 교육과목 및 강사를 선정했으며, 1월 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핵심

지도자과정 교육을 시작으로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순회교육 및 집합교육 등을 병행해 친환경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및 품목별 핵심 전문가교육이 실시된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소비자 교육을 강화해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지원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농산물 생산으로 사천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2008 새해영농설계교육 일정표

월일	교육장소	인원	교육내용
1. 8(화)	농업기술센터	100	핵심지도자
1. 9(수)	농업기술센터	110	참다래
1. 10(목)	용현면사무소	70	친환경쌀생산
1. 10(목)	농업기술센터	70	고추
1. 15(화)	농업기술센터	70	조미채소반(쪽파 등)
1. 16(수)	정동면사무소	100	단감
1. 16(수)	축동면사무소	50	고품질쌀생산
1. 16(수)	곤양면사무소	60	고품질쌀생산
1. 17(목)	정동면사무소	70	고품질쌀생산
1. 17(목)	곤양면사무소	60	단감
1. 17(목)	서포면사무소	60	고품질쌀생산
1. 18(금)	농업기술센터	70	배
1. 21(월)	농업기술센터	70	코뚜레 한우
1. 22(화)	사천읍사무소	60	친환경쌀생산
1. 22(화)	사남면사무소	70	친환경쌀생산
1. 22(화)	농업기술센터	50	단감
1. 23(수)	농업기술센터	120	생활개선
1. 24(목)	사천읍사무소	50	단감
1. 24(목)	곤명면사무소	70	친환경쌀생산
1. 24(목)	향촌동사무소	50	친환경쌀생산
1. 25(금)	농업기술센터	30	양봉
1. 28(월)	농업기술센터	60	친환경농업
1. 29(화)	농업기술센터	60	매실
1. 30(수)	농업기술센터	50	도시소비자반

시정 뉴스 서경방송 채널 6번에서 방영됩니다

사천시정의 생생한 뉴스를 (주)서경방송 채널 6번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일·수·금요일(오전 10시20분, 오후 4시20분, 밤 11시20분)에 주 3회, 1월 3회 방영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사천시 동계전지훈련 막을라

2008년 2월 중순까지 예약완료



사천고교에서 복싱전지훈련 선수단이 연습을 하고있다.

사천시는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마케팅이 스포츠산업으로 토대를 잡아가고 있다. 무자년 새해벽두 시작될 동계전지훈련이 날이 갈수록 그 빛을 발하고 있다.

1월2일부터 1월11일까지 고등부 농구팀, 1월15일부터 2월1일까지 고등부 축구팀, 1월7일부터 1월11일까지

1월11일까지 실업 배구팀, 1월3일부터 1월15일까지 고등부 농구팀, 2월13일부터 2월19일까지 고등부 농구팀이 이미 예약을 완료한 상태이며, 특히 복싱은 전국동계 전지훈련 유치홍보 등 심혈을 기울인 결과 전국 50여개 팀이 동계전지훈련차 사천시를 방문할 계획이다.

시는 동계전지훈련기간동안 농구는 20개 팀이 참여하는 2008 전국여중 쏘나무농구대회, 26개 팀이 참가하는 2007-2008 여자프로농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복싱은 사천고등학교 체육관에 특설 링을 설치해 사천시 스포츠 클럽 북산대회 등 각종 행사를 갖는다.

시는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수많은 선수들이 전지훈련에 참가해 우리지역을 널리 알리는 가교 역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선수단 1천여 명이 참여하게 될 동계전지훈련기간중 참가선수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식, 숙박업소 등에 친절교육과 공공체육시설(헬스) 무료, 유람선 관광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완벽한 준비와 명실상부한 스포츠의 메카로 확실히 자리 잡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사천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해제

2000년 사천시청 신청사업 계획 및 용현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공고됨에 따라 토지의 투기성 거래의 성행과 주변지역의 지가가 급상승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해 오던 용현면 덕곡리 전역과 연결된 송지, 구월, 금문

리 일원의 2748km에 대해 2008년1월1일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이 전면 해제됐다

사천시의 경우 2000년12월26일부터 2007년12월31일(7년) 동안 용현면 덕곡리 전역과 연결된 허가구역내 모든 토지 거래는 관련 규정에 의거 사

전 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2007년 신청사의 준공 및 용현택지개발예정지구의 보상이 완료됨에 따른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의 해제에 앞으로는 별도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아도 토지의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새해부터 소 브루셀라병 방역 변경 시행

소 브루셀라병 감염 색출과 검사체계 보강, 농가 책임의식 및 예방 활동 강화를 유도하여 2013년까지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목표로 사육 전 두수 정기검사, 모든 거래소의 검사증명서 휴대의무화 및 살 처분 보상금 조정 방안 등이 2008년 1월부터 변경 시행된다.

※ 브루셀라병이란 : Brucella속 균에 의해 암소에서는 불임증 및 임신 후반기 유·사산을 일으키고 수소에서는 고환염을 일으키는 세균성 전염병

- 검사대상 확대
 - 사육단계 : 사육중인 1세 이상 암소는 전 두수 개체별 정기검사 의무화 → 연1회 이상 (2008. 1월부터)
 - 거래단계 : 가축시장, 도축장 및 문진 거래되는 1세 이상 모든 소(송아지포함) → 수소 (거세 수소는 제외) 추가 (증명서 휴대)
- 검사증명서 휴대제 및 유효기간
 - 거래 또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 되는 모든 소(거세 수소는 제외) → 증명서 휴대 의무화
 - 검사증명서 위·변조 방지를 위해 증명서 유효기간 2개월로 조정
 - 검사증명서 "매매인"란 신설, 매매인 변경시마다 다시 검사를 받아 증명서 휴대 거래
 - 검사증 기표는 국가공식 기표(쇠고기 이력 추적제 기표) 사용
- 소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으려면 가축시장이나 도축장 출하 21일 전 (송아지의 경우 30일 전)에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가축위생담당 으로 신청
- 살 처분 보상금은 07년 4월 1일부터 시세의 60% 지급하고 있으나 감염률이 1% 미만으로 일정한 유지 되는 등 예방 성과가 정착되었다고 판단될 시 시세의 80%로 조정하는 방안 검토
-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 831-3782, 1588-4060

태풍·호우·대설 등 피해신고요령과 절차안내

- 피해신고는 왜 해야 하는지?
 - 태풍·호우·대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신고 해야 합니다. (노약자, 고령자, 장기 출타자는 예외)
- 피해주민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빨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시설 등은 무엇이며 대상자는?
 -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물·양식시설, 인삼·버섯재배시설, 가족 및 수산물 피해 등이며
 -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염색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입니다.
- 가축중 공무원, 회사원, 사업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및 재난안전대책본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피해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 피해 신고서에 의해 피해의 종류와 수량을 조사하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수 및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번호 등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 합니다.
- 고령자, 노약자는 리·동장 및 담당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 하고 정기 출다 등에 의한 부재시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 피해신고서는 리·동장 및 읍·면·동에 비치된 것을 활용하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 피해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 피해피해 등은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시고
 - 인명피해는 주민등록 주소지에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합니다.
- 피해신고 제외 대상은 무엇인지?
 - 반파미만의 주택, 어선, 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피해
 - 상가 및 상점, 가계도구, 농기계, 비닐하우스내 부대시설
 - 무허가 시설, 농림부의 비닐하우스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규격 비닐하우스, 해양수산부의 수산물·양식시설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 등입니다.
 - 다만 주택은 허가 유무와 관계없이 피해신고 대상입니다.
- 피해신고에 대한 궁금한 것에 대한 문의는?
 - 각 읍·면·동 및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전화문의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접속)질의하여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알림

-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시오니 지가조사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시민여러분께서는 토지특성조사 기간(2008. 1. 2. ~ 2. 29.)까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시청 민원지적과(☎055-831-28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 일시
 - 기간 : 2008. 1. 2. ~ 2008. 7. 30.
 - 토지특성조사 : 2008. 1. 2. ~ 2. 29.
 - 지가신청 및 검증 : 2008. 3. 3. ~ 4. 18.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자가 검증 : 2008. 4. 19. ~ 5. 15.
 - 지가결정·공시 : 2008. 5. 31.
 -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자가 검증처리 : 2008. 6. 1. ~ 7. 30.
-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법
 -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사천시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기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신청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우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사천시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원면적당 가격(원/㎡)입니다.
- 개별공시지가의 활용범위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로 적용
 -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
- 기타 개발부담금,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개발 제한구역내 토지매수, 기반시설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료의 산정에 사용

2008 기술지원과 주요사업 안내

사업명	규모	사업비(천원)	주요내용
농산물 유통분야 주요사업			
농산물 통합상표 개발고교·활용농가 상차, 개발고교·활용농가 지원	120,000		농산물 통합상표개발고교·활용농가 상차, 개발고교·활용농가 지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개 품목 (단감, 귤·마늘)	60,000	단감, 사천마늘 등 우리시 농산물을 지리 정보체계 구축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2개소	14,850	농산물의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와 관련된 기기, 용기, 설치지원
고품질 쌀 생산·제정 시설설치	1개소	70,000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전조시설 설치 지원으로 시·현상 이미지 제고
합다레 전문제정기 구입사업	1개소	80,000	합다레 전문제정기 구입지원으로 고품질 신산 합다레를 소비자에게 공급 및 농가소득증대
□ 경영수출분야 주요사업			
수출농가 지원(시)	40,000		수출농가 및 업체지원 5~10% (시·지세 지원)
수출농가 지원(도)	35,000		수출농가 지원(도 지원사업)
수출농가 지원(국)	35,000		수출농가에 대한 매담 800원 이하 지원
농산물 홈페이지 구축지원	5농가	7,000	신규 홈페이지 제작 희망 농업인 지원
농산물 홈페이지 개발지원	10개소	5,000	기존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 수정 희망 농업인 지원
농산물 쇼핑몰 홍보비 지원	1개소	18,000	농산물 쇼핑몰 홍보
□ 식량작물 분야 주요사업			
농산물 생산·포장 시설	1개소	100,000	건강한 육류 생산으로 고품질 쌀 생산 여건 조성
농산물 생산·포장 시설	1개소	100,000	건강한 육류 생산으로 고품질 쌀 생산 여건 조성

원질쌀보급 생략제	30ha	9,000	보리 생략제로 쌀발식 생산
농공 제품사업	25ha	16,000	국민건강식품 물품 구매 확대
물방배추배추	4,500ha	102,500	병해충피해 최소화로 농가소득 보전과 식량안정성 증진
이행농산물지원금배분	수시	48,973	이행조수배 추수농가 보상
□ 소득작물분야 주요사업			
친환경수출농산물지원(지출구동육장)	1개소	5,000	단동하우스캐시
친환경수출농산물지원(배기열화수)	2개소	10,000	배기열화수장치
친환경수출농산물지원(율이온)	2개소	10,000	율이온발생기
친환경수출농산물지원(2면외안)	3개소	15,000	촉음그린하우스
중안광사출사출발 배반비검량	2개소	40,000	하우스보온시설
시설원예자동화검정기 수출확대	2개소	20,000	하우스재배기장치
시설원예에어믹스장점점진조성	2개소	20,000	하우스에어믹스
양액제비엔에어믹스장점점진조성	2개소	12,000	이온화장점장치
조각배양수출농산물생산단지조성	1개소	50,000	딸기조각배양소
레이저자동화배양원 방지수출 촉진	1개소	19,000	자온자동화배양
국내산품종보육대상수출 딸기부주산지단지	1개소	7,500	딸기부주산지
수출장미생산기공정지원사업	1개소	8,000	수출장미생산기
수출장미생산물출발배추배추	3개소	15,000	실트모방기
딸기시설하우스 시설 현대화지원	0.2ha	40,000	딸기시설하우스
딸기온실시설지원	20대	330,000	한기온실
노후하우스시설개선사업	4.0ha	358,000	하우스재배포장제
노후화·부대 시설개선 사업	30동	40,000	악재살포시설
시설하우스부조포장제 사업	1ha	40,000	하우스부조포장제
과수원부조포장제지원관공실생산	1개소	8,000	과수원부조포장제
인터넷이용과실생산지온 저장시스템형성	1개소	15,000	저온저장시설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합다레)	10동	1,523,400	과수원현대화사업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과수)	7동	353,200	과수원현대화사업
과수원집비지침사업	자율	167,972	과수원집비
농산물재배보급지원	자율	141,180	농산물재배보급
과수조성시설현대화사업	54.4ha	65,240	과수원현대화사업
바이오디젤유류생산	10ha	30,000	유류생산
경관생산지생산물지원사업	1개소	30,000	생산지생산물

☎문의사항 : 농업기술센터 ☎831-3860(농산물 유통분야), ☎831-3869(경영수출 분야), ☎831-3874(식량작물분야), 247831-3879(소득작물 분야)

복지 알림 방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참여안내



우리 주변에는 어렵게 살아가는 소년소녀 가정세대, 독거노인, 저소득 장애인, 사회복지 시설 아동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급진 겨울은 경기불황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어려운 이웃을 찾는 손길이 줄어들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이 더욱 외롭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이들은 더욱 더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작은 물줄기가 모여 강과 바다를 만들고, 작은 흙덩이가 모여 큰 산이 됩니다. 우리가 참여한 작은 정성과 따스한 손길이 사람의 산맥을 만들고 희망의 바다를 열어 줍니다.

우리 모두 전 시민이 하나가 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꿈과 희망을 주도록 작은 정성을 모으는 연말연시 이웃돕기라는 사랑운동에 나뉘어 먼저 참여합시다.

□ 각 기업체와 개인 모두 기부하고자 하는 곳을 지정하여 기부가 가능하며
□ 여러분께서 기부하신 성금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에 의하여 기업에게는 전액손비 처리되며, 개인에게는 연말 정산시 세금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연말연시 집중모금기간 : 2007. 12. 1 ~ 2008. 1. 31
♥ 사천시 모금 목표액 : 139,112천원
♥ 이웃돕기참여방법
♥ ☎ARS : 060 - 700 - 1212

나눔은 투자입니다. 행복주주가 돼주세요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돕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베푸 작은 사랑은 얼음 밑에 흐르는 물처럼 끊임없이 흘러 '희망'이란 이름으로 되돌아옵니다.

- 한 통화당 2000원씩 이웃돕기성금으로 적립됩니다.
♥ 각 은행별 성금접수계좌 (수수료 면제)
예금주:경상남도공동모금회

우리은행	751-04-108497	기업은행	171-033886-01-023
국민은행	841101-01-003253	수협	708-01-022044
제일은행	775-20-251052	우체국	612499-01-000973
조흥은행	978-01-004895	경남은행	579-07-0004456
외환은행	074-22-00547-6	농협	849-01-292661
신한은행	140-003-235112	하나은행	530-810014-62004

♥ 각 언론사 성금접수창구

언론사명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FAX	담당자명
KBS창원 방송총국	신한	100-023-611678	KBS 이웃돕기성금	280-7120	윤선애 (280-7120)
	농협	866-01-210206			
	경남	638-07-1004000			
KBS 진주방송국	농협	801162-51-016329	KBS 진주 이웃돕기성금	740-7149	강명호 (740-7149)
	경남	561-07-0032352			
마산 MBC	농협	849-01-309985	마산MBC 이웃돕기성금	250-5023	원보연 (250-5023)
	경남	502-07-0213613			
진주 MBC	농협	801043-51-047350	진주문화방송	771-2126	정지영 (771-2126)
	우리	149-226954-13-043			
KNN부산 경남방송	경남	516-07-0176546	사회복지공동모금회경남지회	-	양성희 (850-9215)
	경남	634-07-0006853			

♥ 신문사별 성금 접수창구

신문사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FAX
경남신문	김성수	283-3233	283-8100
경남일보	김은도	751-1081	757-4222
경남도민일보	목명수	250-0123	250-0124

♥ 사랑의 동전나누기
-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사 사회봉사 공동모금회 경남지회가 연합으로 고속도로 볼게이트에 모금함을 설치하고 사랑의 동전 나누기 모금 행사를 실시합니다.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 안내

사천지역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요람이 될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36-17 소재)이 오는 2008년 1월 2일부터 이용대상자 모집을 위한 접수 및 상담 예약을 시작한다.

- 운영프로그램
 - 상담·사회재활
초기상담, 종합상담, 재활심리상담, 심리평가, 놀이치료, 조기교육, 사회적응훈련(방과후교실), 주간보호 등
 - 의료재활
의료상담, 작업치료(감각통합훈련), 언어평가, 언어치료가향, 물리치료, 수치료, 체력단련실 운영 등
 - 정보·직업재활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 지원고용, 직업능력평가, 정보화교육 등
 - 재가복지
지역사회자원조직, 장애인식개선, 자원봉사자 관리, 후원 개발 및 관리 등
- 이용안내
 - 대상 : 사천지역 장애인 및 가족
 - 접수방법 : 전화, 방문 및 예약상담
 - 상담 및 예약전화 : 835-2571 ~ 4
 - 이용시간
 - 평 일 : 09:00~18:00
 - 토·일요일 : 09:00~15:00
 - (상담 및 체력단련실 이용만 가능)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2008년부터 사천시에서는 관내 거주자 중 실질적으로 자녀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 노인계층과 상대적으로 근로능력이 취약한 장애인세대,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등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중에서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7000원 미만인 세대에 보험료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기 '희망이 자라는 열린학교' 운영 안내

- 겨울방학 동안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활기차고 효율적인 시간 활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생활 능력의 지속적 발전 및 장애아동에 대한 가족의 상시 보호부담을 줄여줄 열린학교를 운영한다.
- 대상 : 사천시에 거주하는 초, 중, 고에 재학 중인 장애아동 35명
- 기간 : 2008년 1월 2일 ~ 1월 26일
- 장소 :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 주관 : (사) 사천시장애인부모회
- 교육내용 : 학습활동, 특별활동, 현장학습
- 문의전화 : 사천시청 주민생활지원과 831-2609(담당자 : 박춘정), 사천시장애인부모회(833-4042)
- 후원계좌번호 : 농협845108-51-121852 (예금주 : 사천시장애인부모회)

시정 소식

2008 WKBL총재배 전국여중꿈나무 농구대회 개최

사천시는 2008 WKBL(한국여자농구연맹)총재배 전국여중꿈나무 농구대회를 1월21일부터 1월28일까지 8일 동안 삼천포체육관과 삼천포화생체육관에서 개최한다.

동계전지훈련을 겸한 2008 WKBL총재배 전국여중꿈나무 농구대회는 전국의 여중 18개팀 선수 및 임원, 그리고 선수가족 등 1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회는 한국중고농구연맹(회장 강인덕)이

주최하는 대회이며, 특히, 1월26일부터 1월28일까지는 여자프로농구경기를 유치해 매일 1경기씩 삼천포체육관에서 열리게 된다.

이번에 개최되는 대회는 사천시가 전국의 농구 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와 함께 항공우주산업과 해양관광 문화가 어우러진 관광 사천시를 전국에 알리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깨끗한 시가지 조성과 친절한 손님 맞이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경기 일정

(여중꿈나무 경기)

일 자	삼천포체육관	삼천포화생체육관	비 고
1.21(월)	10:00~19:00(8경기)	10:00~19:00(8경기)	
1.22(화)	10:00~19:00(8경기)	10:00~19:00(8경기)	
1.23(수)	10:00~19:00(8경기)	10:00~19:00(8경기)	
1.24(목)	10:00~19:00(8경기)	10:00~19:00(8경기)	
1.25(금)	10:00~13:30(4경기)	10:00~13:30(4경기)	
1.26(토)	13:40~15:00(2경기)		결선
1.27(일)	13:40~15:00(2경기)		〃
1.28(월)	15:00~17:00(2경기)		〃

* 입장료 : 무료

(여자프로농구 경기)

일 자	삼천포체육관	대진표	비 고
1.26(토)	17:00~	KB국민은행 : 삼성생명	SBS스포츠, WKBL TV 중계
1.27(일)	17:00~	금호생명 : 우리은행	〃
1.28(월)	19:00~	신세계 : 신한은행	〃

* 입장료 : 어른 5,000원, 학생 3,000원, 단체 2,000원

2008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새로운 가족제도

호적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제도 신설

- 혼인신고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협의제도 시행
 -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 당사자가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그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함
- 성(姓) 변경제도 시행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
- 친양자입양제도 시행
 - 만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판결을 받아 혼인중의 출생자로 인정받는 제도로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종료되며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
- 호적등본이 5가지의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로 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 *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
 - *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에 관한사항)
 - * 입양관계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수수료 : 통당 1000원(중전 통당 600원)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노인취업센터 운용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에 대비해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창출해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 사회참여 확대, 보충적 소득지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노인들이 지역사회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인취업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고 있다.

- 취업희망자 구인, 구직 상담 및 접수
- 연중 수시
-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노인취업센터
- 대상
 - ▶ 구 직 :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 ▶ 구 인 : 노인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주
- 접수방법 : 전화상담 및 내방
- 일자리유형 : 경비, 청소, 단순노무 등
- 문의처 : 대한노인회사천시지회 노인취업센터 ☎854-2326

자동차세 산납제도 안내

자동차세의 납세편의 및 세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자동차세 산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동차세를 매년 1월중에 1년분을 산납하면 당해년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합니다.

자동차세 산납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신고기간 중에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시청 세무과를 방문(전화신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아 래 -

구 분	신고기간	공제 내역
1월중에 신고납부 하는 경우	1/16~1/31	연세액(1/1~12/31)의 10%공제
제1분기 납부 하는 경우	6/16~6/30	2/1분기액(7/1~12/31)의 10%공제
신고납부 하는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3/16~3/31	4/1~12/31기간 세액의 10%공제
신고납부 하는 경우	9/16~9/30	10/1~12/31기간 세액의 10%공제

* 문의사항 : 세무과 자동차세 담당자 ☎055-831-2893
해당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자

2008년도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공시일정안내

(세무일정)

- 주택특성조사(2007. 11. 30 ~ 2008. 1. 25)
- 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2008. 2. 1 ~ 3. 4)
- 가격결정 및 의견제출(3. 7 ~ 3. 28)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4. 30)
- 이의신청(4. 30 ~ 5. 30)
- 이의신청 처리(5. 31 ~ 6. 30)
-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6. 30)

□ 주택가격산정

1.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합니다.
- 기준일 : 매년 1월 1일
- 토지 및 건물 특성 37개 항목 현지조사
2. 비교 표준주택을 선정합니다.
- 동일읍도지역 내 개별주택과 이용자가 유사한 표준주택을 선정
* 표준주택 : 개별주택의 가격산정을 위하여 건설효용부담권이 미리 선정하여 평가한 단독주택
3. 개별주택가격을 선정합니다.
- 개별주택과 표준주택 간의 특성차이를 비교하여 가격배율 산출
주택가격 = 비교 표준주택가격 x 가격배율
4.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합니다.
- 전문성이 있는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주택 가격을 검증

□ 가격결정

- 열람기간 : 2008. 3. 7 ~ 3. 28
- 열람장소 : 시청 세무과, 주택소재지 읍면동민원실
- 열람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전화

□ 의견제출(열람 후 가격이 부적정한 경우)

- 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사용하여 민원인의 의견가격 등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
- 시에서 재조사를 합니다.(인근주택과 가격 형성성 등을 관계공무원이 조사)
- 전문성 있는 감정평가업자가 재검증을 실시합니다.
- 재조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합니다.

□ 이의신청

- 신청기간 : 4. 30 ~ 5. 30
- 신청기관 : 시청 세무과
- 신청방법 : 개별주택가격 결정 통지문을 받은 후 이의가 있을 경우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위 기간중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가격을 재조정할 수 없고,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함)
- 이의신청처리
 - 5. 31 ~ 6. 30 사이에 시청이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
 - 공식가격 변경 시 조정공시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제' 안내

일반음식점에서 쌀과 식육 원산지 표시를 2008년1월1일부터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

◇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제의 주요 내용은 ?
쌀의 원산지 표시는 영업장 면적 200㎡ 이상의 업소에서 실시하며, 식육은 100㎡ 이상인 음식점에서 갈비 등 쇠고기를 조리 판매하는 업소에 대하여 식육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국내산 표시와 함께 식육의 종류를 한우·젓소·육우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 수입산이라 표시하지 않고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원산지 표시 대상 음식(메뉴)의 종류는 ?

종류	대상	종류	대상	종류	대상
쌀	0	양지	0	제비추리	0
생등심	0	갈비	0	목심	0
생불고기	0	불고기	0	양념갈비	0
차돌박이	0	부채살	0	이동갈비	0
스테이크	0	우둔살	0	주물럭	0
안창살	0	안심추리	0	떡갈비	0
치맛살	0	살치살	0	불고기	0
살치살	0	토시살	0	갈비살	0

◇ 원산지 표시(예시)

◇ 쌀 : 쌀(국내산), 쌀(미국산)
◇ 국내산 쇠고기 : 갈비(국내산(한우), 등심(국내산(육우)), 등심(미국산), 갈비(미국산), 등심(미국산))
◇ 수입생우 : 국내에서 사육기간 6개월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
○ 6개월 이상 사육우 도축시 : 갈비(국내산(육우, 미국산)), 등심(미국산)
○ 6개월 미만 사육우 도축시 : 갈비(미국, 등심(호주(산))

◇ 원산지 표시(예시))

- ◇ 우리 업소에서 사용하는 쌀은 국내산입니다
- ◇ 우리 업소의 불고기는 국내산이며, 한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 우리 업소의 갈비는 호주산과 뉴질랜드산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 국내산의 경우 한우, 육우, 젓소로 구분 표시

◇ 원산지 표시제 위반시 행정처분은 ?

위 반 사 항	처분 기준
○ 쌀 및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때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 원산지 및 종류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 처분(500만원)
○ 원산지만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 처분(300만원)
○ 종류만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 처분(100만원)

* 부과실 영업자에 대한 면책규정이 있으므로 반드시 원산지가 표시된 거래내역을 보관

2008년 정기분 면허세 납부 안내

1월은 각종 인·허가나 면허 등에 부과되는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납부하신 지방세는 시정발전의 중요한 재원이오니, 납기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의무자 : 2008. 1. 1일 현재 각종 인·허가나 면허 소지자
- 납부기한 : 2008. 1. 16 ~ 1. 31
- 납부장소 : 관내 전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

□ 납부 방법

- 전국 우체국 및 농협, 관내 전 금융기관 방문 직접납부
- 인터넷 지로납부(<http://www.giro.or.kr>), 농협인터넷뱅킹, 농협킹(☎1588-2100 농협) 납부
- 신용카드로산원(구결제), 현대) 납부하는 시청 세무과 방문 및 인터넷납부
- 지방세포털시스템(유펙스) <http://www.wetax.go.kr>

□ 불이익처분 :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관여사업 제한(면허 취소)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문 의 처 : 시청 세무과 면허세담당자 ☎(055)831 - 2896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자

제11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사천시의회의는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26일까지 22일간의 회기로 제119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와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청취, 사천시 브랜드 슬로건 개발사항 보고 청취, 서부종합사회복지관·곤양면보건지소 건립에 따른 추진상황 청취, 송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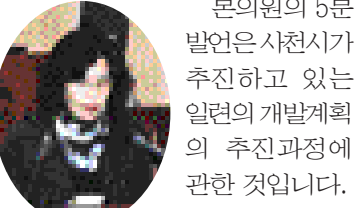
업 보고 청취,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운영방안 검토 보고 청취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 본회의에서는 이정의회의 사천시가 추진 중인 일련의 개발계획의 추진과정에 관한 5분 자유발언과 김유자 의원의 여성인력지원개발 확대 및 내실화 방안과 여성공무원의 인사관리 대책에 대한 시정질문, 이상수 의원의 서부시장 환경개선 문제와 실안 관광단지 세계명물교량 '미니시암' 건립, 창선·삼천포대교 명칭 변경, 각종 행사 축제 주무대 건립에 대한 시정질문, 이정희 의원의 화순포항 사 의회등 운영방안과 관련된 시정질문이 있었다.

다음은 이번 제11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이정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김유자, 이상수, 이정의회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이다.

5분 자유발언

[이정의회의원(제119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본회의의 5분 발언은 사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개발계획의 추진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11월 28일 본회의는 지역경제과를 대상으로 '산단조성 관련 기본계획 용역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담당과장 전철로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료가 아니라서 여분의 자료가 없다'는 황당한 답변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사천시는 2008년도 업무보고를 파워포인트 자료로 진행했고 모두 문서로 출력하여 보냈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는 문서로 쉽게 출력되며 그대로 메일로 보내도 됩니다.)

12월 사천시의회 연석회의의 석상에서 또 다른 산업단지 조성관련 시행계획서로 구성된 기공행사가 와서 기본계획안을 설명했습니다.

이 또한 자료요청을 한 바 담당과장은 업체 기밀사항이라 문서로 배포 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시의회의회의 장면은 900여명의 관내 공무원이 모두 볼 수 있게 청내로 방송되고 있는데도 그 자료가 업체 기밀사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초등학교 수준의 아이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물며 시의회의의 요구에 이런 식의 답변을 하는 담당과장을 여러분은 이해하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정도라면 저는 황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빗대기에 앉았고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의 농어민들은 생계자제를 유지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치인들은 한결같이 농어촌을 살리자한다고 하면서 철저히 농어촌을 공동화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정책으로 인하여 이제 사천시와 같은 소도시는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고, 경쟁적으로 산업단지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개발이나 보존이나의 심각한 갈등이 지역사회에서 일고 있는 것은 이렇듯 잘못된 국가정책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고 본회의원은 생각합니다.

개발을 해서 사천시민에게 좋은 일이라면 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천시가 진행하는 일련의 개발사업의 진행과정이 이렇듯 막무가내 식 밀실행정으로 진행되어져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현재 사천시의 개발 사업은 절차적인 미비점과 일부 공무원의 막무가내 식 사업실행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자료 최종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시정조정위원회 보고를 하는가 하면 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도 없이 사천시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법인설립 출자 타당성조사 보고를 마

쳤습니다.

타당성조사의 용역을 맡은 회사가 사업의 시공업체인가 하면, 이 회사의 보고서에는 사천만이 가지는 가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매립면적 신청시, 어업권 등의 권리가 있는 지의 예상피해 및 보상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천만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개발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시공업체가 지역주민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생계터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 토지조성인가를 잘감하려는 의도는 아닌지요?

본회의는 사천시가 다음의 몇 가지를 유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사천시는 일련의 개발계획의 진행에 있어 마치 특정집단의 반대가 있어 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것처럼 지속적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천시의 행정절차가 빠르고 민첩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행정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정집단의 반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우려하는지 충분한 견수할 절차를 거쳐 미비점을 보완하여 잘 것입니다.

둘째, 가장 중요하게는 어떠한 개발계획도 그 성과와 이익이 지역주민들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발의 이익이 일부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업체에 돌아가고 실제로 주민들은 황폐해진 땅만 남아서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또 개발이익이 일부 공사사업을 담당한 업체에 돌아가고 실제 주민들은 황폐해진 땅만 남아서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또 개발이익이 일부 공사사업을 담당한 업체에 돌아가고 실제 주민들은 황폐해진 땅만 남아서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셋째, 개발계획과 관련한 행정의 집행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천시의 지도를 바꿀만한 거대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의견교환과 논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론이거니와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들과 함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보다 나은 결정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도 지금처럼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라 제대로 된 검토 자료를 가지고 충분한 설명해내고 그 이득과 손실을 제대로 알려줘야 합니다.

현재 해수부의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2001~2010)의 기본방향은, 1) 농경지 확보를 위한 간척사업과 도시용지 확보를 위한 해상신도시 같은 대규모 매립은 제한하고, 2) 특히 갯벌이 발달되어 있는 해면에 대한 매립은 이를 최대한 억제하며, 3) 매립이 불가피해더라도 환경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매립을 허용하며, 4) 매립공법도 곡선형의 지선 형성, 매립지 내 해수유통수로 확보 및 일정한 경사도를 확보 등 최첨단 공법 도입을 통한 환경친화적인 공법을 도입토록 한다는 것이며, 그동안의 '국토확장적 선점식 개발' 위주의 매립에서 '해

양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더 우선시하는 환경친화적' 매립으로 연안매립정책의 기본틀을 완전히 전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와 같은 '웬트랜드뱅크시스템(Wetlands banking system)'을 본격 도입하여, 앞으로 갯벌지역을 매립할 경우 매립자도 하여금 대체갯벌 조성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나아가 전국 연안매립에 대한 통합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산업법·향민법 등 5개 법률에서의 매립기본계획에 관한 의제규정 삭제 등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방침대로라면 사천시가 추진하는 산업단지의 공유수면매립 기초계획 반영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는가 하는 본회의원의 질문에 담당과장은 그냥 잘 해보겠다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답변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행정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장밋빛 환상을 심어 주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모는 것을 특정집단의 반대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가 됩니다.

지역의 중요사업에 대한 기본자료도 의뢰하여 제출하지 않는 것은 시의회의 역할과 주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과에서 자료를 손에 쥐고 공개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혹 사사로운 이익과 관련된 이익이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들 '의회와 집행부는 두개의 바퀴로 움직이는 하나의 수레'라는 표현을 합니다. 시의회를 대하는 집행부의 태도가 이런 정도라면 그 수레는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사천시는 지금까지 개발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최대한 공개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는 것을 본회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내용

[김유자의원(제119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본회의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낀 사항 중 시급히 개선 및 추진되어야 할 여성과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들의 참여의욕과 역할 수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사천시에서는 75개의 위원회 중에 여성위원이 포함되어 있는 위원회 3개만 소상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가 본 건 질문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을 어떤 조건으로 어떤 절차로 어떤 여성들을 위촉하여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기에 위원회 회론 시 마다 공·시간 가릴 것 없이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집행부, 의회 할 것 없이 여성위원 모두 입을 닫고 있다고들 하는지 듣기에 매우 거북하고 민망합니다.

표현이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 이들의 입을 열게 할 수는 없는 지? 입을 닫고 있어도 하는 것 보다 나은지? 그래도 시정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여성 권익에도 움이 되는 편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식과 과학의 원천 시대에 말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여성위원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어느 사안에 대하여 부족한 지식, 불확실한 정보 등으로 자신이 없기 때문 일 수도 있고 의문, 측근 시정 사항 등 동일 일 인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을 때, 타인이 먼저 말했을 경우 뒤에서는 중언부언이 되어 말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그 외에도 말 뿐 아니라 뭐든지 앞서 한 사람이 너무 잘 했다고 생각되면 뒤 서서인 자가 주눅이 들어 못하는 경우도 있을 법한 지극히 상식적인 이 견에 대하여는 오로지 여성위원에게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라도 생각합니다.

위원 중 남성위원을 분석해보면 관련부서 공무원, 시의회 의원, 일반사회인은 사회단체 임직원을 몇 개 이상 겸하여 가진 충분한 경력 자들로 사회 활동이 왕성한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처음부터 배워서 모두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학습과 경험, 사회활동 등에서 얻어지고 배워진 학식과 지식 아니겠습니까?

여성위원을 아무 대책 없이 갑자기 확대하였고 그것도 숫자 채우기 식으로 위촉은 내가 하겠다.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식의 결과가 바로 지금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해당 부서장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실태를 파악 분석하여 개선책을 마련 할 것이 여성위원들이 입을 닫은대 대한 책임감과 미안함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시 운영위원회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 여성 인적자원 개발 확대 및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묻습니다.

「여성정책이란 어떤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요약하면 동서고금을 통하여 오랫동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고 불공평하게 사회 각 분야에 소외되고 차별화된 사회구조를 바꾸어 여성의 사회 참여와 참여 한 분야에서 바람직한 발전을 이룩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과 제도 운영 전담 기관을 정부기구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 사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여성 정책 전담부서에서 좋은 인적자원을 발굴하거나 개발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시책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우리 여성들로서 하급 인적자원 개발에 동참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문제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찾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에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여성 인적자원, 지역사회가

시정질문내용

[김유자의원(제119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로 29%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목표 편고치인 40%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원 외에도 여러 의원으로부터 위촉과정 개선과여성비율 확대를 수차 요구 하였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이행이 잘 되지 않고 있어 한번 더 촉구하는 의미로 받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75개의 위원회에 대하여 설치근거, 위원자격요건, 심의내용 등 위원회 전반에 대하여 총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3개만 소상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가 본 건 질문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을 어떤 조건으로 어떤 절차로 어떤 여성들을 위촉하여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기에 위원회 회론 시 마다 공·시간 가릴 것 없이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집행부, 의회 할 것 없이 여성위원 모두 입을 닫고 있다고들 하는지 듣기에 매우 거북하고 민망합니다.

표현이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 이들의 입을 열게 할 수는 없는 지? 입을 닫고 있어도 하는 것 보다 나은지? 그래도 시정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여성 권익에도 움이 되는 편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식과 과학의 원천 시대에 말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여성위원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어느 사안에 대하여 부족한 지식, 불확실한 정보 등으로 자신이 없기 때문 일 수도 있고 의문, 측근 시정 사항 등 동일 일 인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을 때, 타인이 먼저 말했을 경우 뒤에서는 중언부언이 되어 말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그 외에도 말 뿐 아니라 뭐든지 앞서 한 사람이 너무 잘 했다고 생각되면 뒤 서서인 자가 주눅이 들어 못하는 경우도 있을 법한 지극히 상식적인 이 견에 대하여는 오로지 여성위원에게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라도 생각합니다.

위원 중 남성위원을 분석해보면 관련부서 공무원, 시의회 의원, 일반사회인은 사회단체 임직원을 몇 개 이상 겸하여 가진 충분한 경력 자들로 사회 활동이 왕성한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처음부터 배워서 모두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학습과 경험, 사회활동 등에서 얻어지고 배워진 학식과 지식 아니겠습니까?

여성위원을 아무 대책 없이 갑자기 확대하였고 그것도 숫자 채우기 식으로 위촉은 내가 하겠다.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식의 결과가 바로 지금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해당 부서장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실태를 파악 분석하여 개선책을 마련 할 것이 여성위원들이 입을 닫은대 대한 책임감과 미안함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시 운영위원회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 여성 인적자원 개발 확대 및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묻습니다.

「여성정책이란 어떤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요약하면 동서고금을 통하여 오랫동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고 불공평하게 사회 각 분야에 소외되고 차별화된 사회구조를 바꾸어 여성의 사회 참여와 참여 한 분야에서 바람직한 발전을 이룩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과 제도 운영 전담 기관을 정부기구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 사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여성 정책 전담부서에서 좋은 인적자원을 발굴하거나 개발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시책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우리 여성들로서 하급 인적자원 개발에 동참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문제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찾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에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여성 인적자원,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여성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개발해야 하며 그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하여 사회적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방안이 있다면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 여성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인사관리 대책에 관하여 묻습니다.

우리시대의 공무원들은 분할하고 열심히 하는 데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공직사회의 능력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과제는 더욱 더 복잡화·다양화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려는 주체는 옛 그대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한 경쟁 사회, 지식정보사회 회로 이전된 행정 환경 변화의 대처방안은 인사정책이 제1순위라고 하더군요.

균형 있는 인력 배치 및 활용,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탄력적인 조직운영 등 효율적인 인사관리, 특히 여성의 적극적인 인사관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여성공무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이 5급 이상 여성관리직 공무원을 2006년까지 10% 이상 도달하도록 임용목표제를 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의하면 4급 이상 여성공무원 확대 5개년 계획을 추진 2006년→5.4%, 2007년→6.2%, 2010년→11%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5급 43명 전원이 남성이고 여성 5급 0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직년수 25년 이상 되면 5급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고, 현 5급의 경우 25년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성공무원 6급 13명이 25년 이상 재직 했고, 특히, 30년 이상 2명이 있는 것을 보아 여성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인사 관리를 과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성정책 기본계획은 국내 전반에 관한 계획이 아니라 우리시의 제의 한 계획이 아니지 않을까?

바라건데 여성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인사관리를 실시하여 주요 부서 등 평등하게 여성을 보직하고, 여성관리직을 보충하게 하여 여성 정책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여성관리직(5급) 임용목표제에 대하여 그리고 여성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인사관리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내용

[이상수 의원(제119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시민의 바램을 수렴하고 민의를 파악하여 집행부에 전달해야 하는 기초의원 기본적 소임의 일환으로 수차례에 걸쳐 질의와 회의를 행한 바 있으나, 아직, 발반 진척이 없는 두 가지 사안과 공무원들의 업무추진 의욕을 고취시키면 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고 불공평하게 사회 각 분야에 소외되고 차별화된 사회구조를 바꾸어 여성의 사회 참여와 참여 한 분야에서 바람직한 발전을 이룩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과 제도 운영 전담 기관을 정부기구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 사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여성 정책 전담부서에서 좋은 인적자원을 발굴하거나 개발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시책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우리 여성들로서 하급 인적자원 개발에 동참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문제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찾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에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여성 인적자원,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여성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개발해야 하며 그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하여 사회적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방안이 있다면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 여성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인사관리 대책에 관하여 묻습니다.

우리시대의 공무원들은 분할하고 열심히 하는 데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공직사회의 능력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과제는 더욱 더 복잡화·다양화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려는 주체는 옛 그대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한 경쟁 사회, 지식정보사회 회로 이전된 행정 환경 변화의 대처방안은 인사정책이 제1순위라고 하더군요.

균형 있는 인력 배치 및 활용,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탄력적인 조직운영 등 효율적인 인사관리, 특히 여성의 적극적인 인사관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여성공무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이 5급 이상 여성관리직 공무원을 2006년까지 10% 이상 도달하도록 임용목표제를 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의하면 4급 이상 여성공무원 확대 5개년 계획을 추진 2006년→5.4%, 2007년→6.2%, 2010년→11%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5급 43명 전원이 남성이고 여성 5급 0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직년수 25년 이상 되면 5급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고, 현 5급의 경우 25년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성공무원 6급 13명이 25년 이상 재직 했고, 특히, 30년 이상 2명이 있는 것을 보아 여성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인사 관리를 과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성정책 기본계획은 국내 전반에 관한 계획이 아니라 우리시의 제의 한 계획이 아니지 않을까?

바라건데 여성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인사관리를 실시하여 주요 부서 등 평등하게 여성을 보직하고, 여성관리직을 보충하게 하여 여성 정책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여성관리직(5급) 임용목표제에 대하여 그리고 여성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인사관리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했으며, 아울러 여타 기초단체와 같이 무한한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제도 도입을 하자는 의견도 함께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는, 막연하게 공무원들의 수동적 자세를 질책하거나 희생이나 봉사만을 강요하기 보다는 이러한 제도적 보완이 병행 되어져야 합리적으로 능률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 의원은 우선적으로 도시과 보살담당에게 업무추진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인센티브 방향은 인사 혜택 승진 등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시민과 직접적으로 부대끼고 때로는 설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합의도, 때로는 논쟁도 해야 하는 어려운 부서인 만큼, 만일 이 보살담당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한다면 사천시 도시계획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불이익이나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이어서 이루어져야 업무의 특성상 합리적이고 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어짐으로 그런 만큼 소임을 잘 마무리 짓는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대우가 필연적이라 생각하여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는 공사구간 담당자가 보살 업무를 함께 한다는 것인데, 본의원은 별도 보살팀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부시장 환경개선 문제입니다.

제115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했던 것으로 아직 가지적인 움직임이 없어 다시 질문을 합니다.

역시 2008년 까지 20억원을 투입하여 현대화사업을 하겠다는 김수영 시장님의 공약도 공약이거니와 우리 삼천포항을 찾는 외래 관광객에게는 어찌하면 서부시장이 삼천포의 얼굴이라는 것을 재차 주지하고 싶습니다.

관광비수기에 삼천포항을 찾는 관광버스 중에는 계수 물품을 사거나, 수산물물을 쇼핑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이는 서부시장이 삼천포항의 얼굴이면서도 정작 꾸민 출동한 관광객에게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관광의 내박자인 버거, 먹거리, 살거리 그리고 즐길 거리를 제대로 갖추어야 비로소 관광도시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시장상인들의 생활터전 환경을 개선한다는 원론적인 것인데, 관광도시의 중요한 한 박자를 맞추는 또 다른 의미를 부가시켜 접근하여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6년 전 사천시의회의에 발의된 것은 즐거리까지 관광객의 관광발달을 위한 투자와 비전을 제시했고 아울러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기초의원들이 작은 범위로서는 지역구의 관리 민의수렴에 있다 한다면, 큰 의미로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에 있으며, 한편으로는 직능대표로서의 역할도 담당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본 의원들의 개인적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남다른 관심과 정보를 접할 수 있거나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또 우리 사천시의 미래 방향이라는 차원에서 집요하게 관광발전을 위한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그 동안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그리고 시민 모두 자 이러한 생각에 뜻을 같이 하여 광범위한 진척과 성과를 거두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미흡함과 당사 풀어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꼭 같은 의견을 다시 제안합니다.

2007년 올해도 우리 사천시는 1월 1일 연휴가 해맞이 행사를 시작으로 하여 각종 축제와 이벤트로 끝나가는 해였다고 해도 과히도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 하여 일을 만들지 않으려는 구태를 완전히 벗어났다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본 의원에 제115회 정례회 시정질문과 인사회 발언을 통하여 우리 사천시에라도 정말 민원인을 찾아다니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자비를 지출하면서 소임을 다하려는 몇몇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자는 의견을 제안하

를 건립하자는 의견도 제안 한 바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국 어느 관광지에도 없는 것, 사천시에 오지 않으면 볼 수 없는 특별한 희소성을 가지고 있어, 건립만 되어 진다면 곧바로 선진 관광도시로서 도약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안은 본 의원이 입사회에서 시정 질문했던 것으로 좁은 국토를 가진 우리나라는 지방마다 관광여건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비슷한 관광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뛰어내기 위해서는 오로지 인위적인 특별한 아이템이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어디에도, 아니 세계 그 어디에도 교량을 테마로 한 「미니시암」은 없으므로 그 가치는 충분히 있을 것이며,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수화어행단을 연출 불러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 사천시는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경제구조가 확산하게 되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어서 이루어져야 업무의 특성상 합리적이고 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어짐으로 그런 만큼 소임을 잘 마무리 짓는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대우가 필연적이라 생각하여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는 공사구간 담당자가 보살 업무를 함께 한다는 것인데, 본의원은 별도 보살팀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부시장 환경개선 문제입니다.

제115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했던 것으로 아직 가지적인 움직임이 없어 다시 질문을 합니다.

역시 2008년 까지 20억원을 투입하여 현대화사업을 하겠다는 김수영 시장님의 공약도 공약이거니와 우리 삼천포항을 찾는 외래 관광객에게는 어찌하면 서부시장이 삼천포의 얼굴이라는 것을 재차 주지하고 싶습니다.

관광비수기에 삼천포항을 찾는 관광버스 중에는 계수 물품을 사거나, 수산물물을 쇼핑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이는 서부시장이 삼천포항의 얼굴이면서도 정작 꾸민 출동한 관광객에게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관광의 내박자인 버거, 먹거리, 살거리 그리고 즐길 거리를 제대로 갖추어야 비로소 관광도시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시장상인들의 생활터전 환경을 개선한다는 원론적인 것인데, 관광도시의 중요한 한 박자를 맞추는 또 다른 의미를 부가시켜 접근하여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6년 전 사천시의회의에 발의된 것은 즐거리까지 관광객의 관광발달을 위한 투자와 비전을 제시했고 아울러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기초의원들이 작은 범위로서는 지역구의 관리 민의수렴에 있다 한다면, 큰 의미로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에 있으며, 한편으로는 직능대표로서의 역할도 담당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본 의원들의 개인적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남다른 관심과 정보를 접할 수 있거나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또 우리 사천시의 미래 방향이라는 차원에서 집요하게 관광발전을 위한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그 동안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그리고 시민 모두 자 이러한 생각에 뜻을 같이 하여 광범위한 진척과 성과를 거두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미흡함과 당사 풀어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꼭 같은 의견을 다시 제안합니다.

2007년 올해도 우리 사천시는 1월 1일 연휴가 해맞이 행사를 시작으로 하여 각종 축제와 이벤트로 끝나가는 해였다고 해도 과히도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 하여 일을 만들지 않으려는 구태를 완전히 벗어났다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본 의원에 제115회 정례회 시정질문과 인사회 발언을 통하여 우리 사천시에라도 정말 민원인을 찾아다니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자비를 지출하면서 소임을 다하려는 몇몇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자는 의견을 제안하

*지면부족으로 답변자료는 게재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시정질문내용은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2007년 균형발전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 최우수 지방자치 단체로 선정



균형발전평가 우수지자체 시상식에 참석한 김석훈부시장(왼쪽)이 상을 수여받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부터 18일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균형발전 업무 추진 우수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 사천시가 최우수시로 선정됐다.

금번 평가는 균형발전 관련 지방(도비포함) 부담 자체 사업의 예산현황, 조직정비, 조례 제정,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등 관련 제도 개선 실적, 균형발전 관

련 우수시책 부문 평가를 받았다. 사천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총 824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으며, 균형발전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 협의회 운영, 지역 혁신(1회), 각종 회의를 연 중 6회 실시했으며, 이들 사업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천시 사업기간단축(Closing 10) 규정을 제정했다.

공공기관의 각종 사업을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우리나라의 회계 연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던 것을 매년 11월1일 시작해 익년 10월31일 마감하는 규정을 제정해 동절기 공사 추방 및 부실공사를 예방해 행정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도 동절기

에 공사 설계를 실시해 3월이면 공사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공사 조기 착공 및 품질 향상에 기여를 다졌다고 할 수 있다.

균형발전 우수 대표 시책으로는 지난해 27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경비 지원 사업, 원어민 교사제 운영, 지역 학교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한 인재육성 장학금 조성 및 지원했다. 인재 육성 시책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관내 학교 지원 사업 등 사천시 인재 육성사업과 소규모 워터 및 문화공간 조성, 마을의 후미진 지역 정화활동, 기존 인위적인 담장을 자연스런 풀담으로 조성하고 마을 공원 주변 가꾸기 등 참 살기 좋은 마을 사업을 선정 평가에 대비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소하천정비사업분야 전국 최우수시 선정

전국단위 141개 시군구 평가에서 전국 1위

사천시는 소방방재청에서 실시한 2007년도 소하천정비사업 분야추진실적 전국단위 평가에서 최우수시(전국1위)로 선정됐다.

지난해 11월12일에서 16일 기간중 점검한 소하천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등계획단계, 사업의 집행단계, 유지관리실태, 추진지침 및 각종지시사항이행실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평가해 전국단위 평가에서 최우수시로 선정된 것이다.

사천시는 2007년도 소하천정비사업에 국비지원사업비로 3개 하천에 11억원을 투입 1.1km를 정비했으며, 시자체 사업비로 13개 하천에 79억원을 투입 5.5km

를 정비해 집중호우시 매년 반복되는 전·담·주택 침수 및 농경지 피해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신뢰를 받고 있다. 특히, 소하천 정비사업시 하천과 자연의 조화를 위해 식생블럭 등을 설치해 식물이 제방에서 자라나 자연하천의 모습으로 되찾도록 했으며, 물담태 설치후 복토를 해 초류종자를 뿌리고 상단부에 잔디를 식재해 생태하천 복원에도 크게 기여했다.

사천시는 2008년도에도 소하천정비사업에 국비지원사업비로 3개 하천에 12억원을 투입 해 1.3km를 정비하기로 했으며, 시 자체 사업비로 15개 하천에 85



서포면 외리구 남구 소하천 준공전경

억원을 투입 6.3km를 정비할 예정이며, 조기발주 및 우수기전 준공을 위해 지난해 설계를 시작

해 올해 초 설계를 완료해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하늘이 열린다

노산공원 ~ 신수도 해저케이블 설치, 철탑 철거 협약체결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을 방해하는 철탑

사천시와 한국전력공사는 노산공원에서 신수도간 해저케이블을 설치하고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을 철거하기로 협약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으로 다도해의 아기자기한 유무인도 46개 중 절반 산분령에서 녹도 구간과, 노산공원에서 신수도 구간 배전 철탑 14기와 송전선로로 인

해 다도해의 아름다운 경관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흥물을 보여주게 되어 본래의 한려해상국립공원을 관광하지 못하고 사천시 이미지를 버리게 되었고, 태풍시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재해위험 요소가 있었다.

2004년도부터 시를 비롯한 마도, 영복원 주민들이 한국전력공사 측에 수차례의 건의와 항의

방문을 시작으로 지난해 10월 실안 산분령에서 녹도 구간 철탑 4기를 철거했으며, 노산공원에서 신수도간에는 약 2km의 해저케이블을 설치하고 철탑 5기를 철거하기로 지난해 12월3일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978년12월에 설치한 노산공원에서 신수도 구간의 배전철탑 철거 대상은 노산공원 2개, 씨앗섬 1개, 신수도 2개로 총사업비 3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시와 한국전력공사에서 각각 15억원을 투자해 2009년 상반기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

노산공원에서 신수도구간의 해저케이블은 광통신케이블이 같이 매설되므로 신수도 주민 178세대에 안전한 전력공급과 함께 빠르고 깨끗한 통신시설로 지역 주민들의 정보통신 이용에도 많은 혜택을 보는 효과와 동시 30년 만에 한려해상국립공원 스카이라인 복원으로 사천시 해안관광 활성화를 기대한다.

사천시 여권분소 설치 여권발급기간 단축

사천시는 2008년 6월 여권분소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여권발급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현재 경남도내 여권분소는 4개 지역(진주, 김해, 거제, 거창)에 설치되어 있어 분소가 설치된 지역주민들은 여권을 5일 정도면 교부받을 수 있었으나, 분소가 미설치된 사천시의 경우 시청 민원실에서 여권신청 접수후 경남도청으로 송부, 심사 후 발급받아 민원인에게 교부를 해왔다. 이로 인해 발급기간이 10일 이상 소요돼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이번에 여권분소설치를 희망해 확정됨에 따라 발급 기간이 대폭 단축됐다.

또한 여권분소설치와 더불어 여권만료기간 예고제 운영으로 여권소지자에게 여권만료일을 사전에 예고해 유효기간연장신청을 기간내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절감과 차원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제7회 사천 자활인의 날 행사 개최



지난해 12월28일(금) 오전 11시에 사천지역 자활센터(센터장 정진국)가 주관하는 제7회 사천 자활인의 날 행사에 사천을 예식장에서 개최됐다.

사천시 관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와 실무자 등 160여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2007년도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와 내년도 자활사업 계획을 논의하고 2007년도 자활사업 공로자에 대한 시상

으로 자활근로 참여자의 노고를 격려함으로써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힘차게 출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기념식은 내빈 인사, 감사패 및 자활공로자 시상 이어 자활홍보 영상물을 시청하고, 자활인 노래자랑 순서로 흥겨운 시간을 통해 한 해의 노고를 풀고 내년도에 더욱 힘찬 자활사업 계획을 논의하고 2007년도 자활사업 공로자에 대한 시상하는 뜻있는 자리가 됐다.

2007년 민원행정 경남도 평가 '장려' 수상

사천시는 신청사제정과 더불어 통합민원창구운영과 쾌적한 환경조성 등으로 지난 2007년 11월14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2007년 민원행정종합평가에서 장려로 확정돼 표창패와 시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새해에도 민원편의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천시가 민원행정의 우수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08년부터 일요일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

청소업무 종사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휴식시간 제공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 40시간 근무에 부합하기 위해 2008년 1월부터 일요일은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 이웃이나 행인에게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요일 저녁에는 쓰레기를 배출하지 마시고, 일요일 저녁에 쓰레기를 배출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전용용기나 분쇄기의 종량제 전용봉투에 반드시 분리배출 해야 하며, 재활용 품은 분리배출 기준에 의거 종류별로 분리하여 지정된 요일에 배출 해주시고, 그리고 일반생활쓰레기는 종량제 봉투 사용을 생활화하여 항상 깨끗하고 불법 투기가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시정 밖 소식

대통령기 제27회 경상남도 독서경진대회 사천시 새마을문고 '우승'



독후감 단체부문과 개인부문 입상자들에게 김수영시장이 상을 수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21일 대통령기 제27회 경상남도 독서경진대회에서 독후감 단체부문에서 노산초등학교(우수), 사천여자중학교(우수), 삼천포고등학교(최우수), 개인부문에서 9명, 문고운영부문에서 송보문고가 장려를,

그리고 종합평가부문에서 새마을문고 사천시지부(지부장 신재균)가 우승해 경상남도 우수기를 가져왔다.

사천시 예산대회 시상식은 사천시시장(김수영), 사천시의회회의장(김현철), 사천시교육장(최정기), 사천시 새마을회장(정기현)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부문 17개 학교와 일반부 4명, 지도교사 3명, 초·중·고 학생 59명이 수상했다. 대통령기 제27회 국민독서경진대회는 사회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독서생활화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국민의식 수

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후원으로 새마을문고 중앙회가 주관하는 범국민적 책임기 대회로 종합평가부문에서 새마을문고 사천시지부가 장려, 독후감(고등부) 장려 삼천포고등학교 3학년 송지민, 편지글(초등부) 우수 동성초등학교 6학년 오정현이 입상하는 알찬 결실을 맺었다.

새마을문고 가족들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좋은 독서습관만은 꼭 물려 주겠다'는 신념이 무자녀 사회에 도전할것을 소망하면서 새마을문고 사천시지부가 더욱더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통영해경, 연말연시 불우이웃 위문품 전달'

통영해경 사천파출소(소장 백영현)는 지난해 12월24일 관내 소년소녀가장의 집을 방문 생필품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사천파출소 경찰관과 전투경찰 15명은 올 초부터 인연을 맺어온 사천시 선구동 소재 3명의 손자, 손녀를 돌보고 있는 김모(79세) 할머니 댁을 방문해 쌀, 라면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애로사항 청취, 집주변정리 등 연말연시 따뜻한 온정을 전달했다.



사천시보기 전이는 전국항우동정

제4회 '43애향운동 공로상' 김윤곤 항우 수상



◆수상자인적사항: 김 윤 곤

- 1. 연령 : 52세. 경남 사천시 향촌동 출신, 삼천포 중. 고 23회졸.
- 2. 직업 : 김윤곤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 전화 : 사무실 (051)203-1300 / H/P: 011-841-7233.

3. 공적 사항

- 아름다운 곳 - '사천삼천포에 가보자' 표창을 받고 각 지의 마라톤대회에 5년간 참여해 우리고향 사천시의 이름을 많은 국민들에게 자랑하고 홍보함
 - 2005년 대전사진전시회 참여, 2007년 43애향운동출발 5주년기념 와룡산등산대회 대회장으로 시 10개 단체가 참가하는 와룡산 산행행사를 기획하고 총괄하여 성공적으로 치름
 - 매년 본 43애향운동에 4년동안 일반후원회비, 특별후원금을 납부 후원하여 본 애향운동이 전국에서 크게 활성화하는데 기여함
 - 본부 상임이사로서 본 43애향운동에 힘담는데 까지 참여하겠다는 의지의 출향인임
- '43애향운동 공로상'은 전국에서 '사천삼천포에 가보자' 운동에 수년간 참여와 후원을 한 공적이 큰 사람이나 고향 사천시를 위해 특별한 일을 한 출향인을 수상자로 운동본부가 선정하고 추천해 사천시민의 대표이름(시장)으로 애향운동공로상을 수여한다. 2003년에 제정돼 이번이 4회째이다. 공로상 수상자가 많지 않으면 시상을 하지 않는데 이는 본 43공로상의 질적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운동본부에서 밝혔다.

▶▶ 재경 삼천포 항우회 소식

재경 삼천포항우회는 항우회의 발전을 기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경 삼천포 항우회 내 소모임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여러 소모임들이 연말 송년모임을 알차게 보내고, 새해에는 항우회로 그 힘을 결집하기로 여러 항우들을 의견일치를 보고 실행을 위해 진행 중이다. 그 대표적인 소모임 그룹은 ▼노산회 ▼한려수도회(한수회) ▼삼석회 ▼삼사회 ▼죽방회 ▼재경 삼천포동문회 ▼59회 ▼재경 삼천포61회 ▼재경 삼고33회 ▼재경 삼고32회 등이다.

그리고 재경 삼천포동문회(회장:이종필)는 지난해 11월22일 무스쿠스라는 해산물 뷔페에서 24명의 회원이 송년회를 가졌다. 이 모임은 30대 초반부터 40대 초반에 이르는 회원들로 각양각색의 직업군을 형성하면서 구성되어 있어 차후 항우회를 이끌고 갈 인재들의 모임이다.

또 재경 삼천포61회(회장 정종남) 지난해 12월19일 선릉수산회관에서 22명의 회원이 참석해 동년배생들의 모임 특성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이 날은 오랜만에 나왔거나 처음 나온 여자동창들의 참석자가 많았고 그동안 못 보던 친구들 얼굴을 떠올리며 추억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 재부 장영주 항우 500만불 수출탑 수상

지난해 11월30일 제44회 무역의 날을 맞아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서울 coex 컨벤션센터 3층 오디토리움에서 기념식이 열렸다.

이 기념식에서 우리 지역출신의 기업인인 삼우이엔지(주) 장영주 대표이사(재부 삼천포항우회장)가 작년 300만불에 이어 5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우주항공소년포록이의 항공이야기> (49)

확장하는 항공기

요즘 항공기들은 여성들이 화장을 하는 것과 같이 아름다움을 위해 예쁘게 화장을 하고 다닌다. 과거에는 항공사의 이름과 로고가 전부였지만, 최근에는 동체에 화려한 색상이나 다채로운 문양으로 그림이나 특이한 이미지 등을 새겨놓는 등 항공기 외관이 갈수록 화려해지고 있다. 항공기 외부에 색을 칠하는 목적은 것은 부식을 막아 기체를 보호할 목적 뿐 아니라 여행객들에게 자사 항공기에 대한 친밀감과 홍보용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또한 국가나 기업 또는 관광지등의 지역 홍보를 위하여 항공기 외부 도장을 실시하기도 한다.

유명한 회사와 상표 홍보, 관광지 소개, 국기 등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도장을 하거나, 다채로운 색깔의 조화와 독특한 색으로 확장하는 항공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인기 만화 영화의 포켓몬 캐릭터와 마이크로소프트 도장

을 한 항공기 등이 있다. 또한 특별한 도장이 대세인 가운데에서도 과감히 옷을 벗어 버린 누드 항공기도 있다. 우리나라 국적 항공기들의 경우에는 2002년 월드컵 축구 홍보를 위해 선수들의 얼굴 도장을 하거나, 제주도 홍보를 위해서 특별 도장을 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유명 가수나 한류 드라마 주인공의 얼굴을 비행기에 새겨 넣기도 했다.

항공기 페인팅에 대한 국제 규정은 따로 없으며, 다만 항공사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는 선택 사항일 뿐이다. 항공기 도장 주기는 법적인 제한이 있지는 않으나 보통 5년 정도의 주기로 하게 된다. 항공기용 페인트는 십씨 영하 56도의 지상 12km 성층권 상공에서부터 40도를 오르내리는 열대지방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온도 변화와 대기권 운향 중 만나게 될 화산재나 자외선 등에도 이상이 없어야 하기 때

문에 일반 산업용 페인트에 비해 신축성이 좋고 접착력도 매우 강한 고가의 도료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보잉 747-400 점보기 1대를 도장하려면 약 220갤런 즉 55갤런짜리 4드럼의 페인트를 구입해야 하며, 제2드럼 무게만 도는 1톤에 육박하며, 페인트 값도 약 2억5000만원 이상이라고 한다. 또한 보잉 747-400 점보기 1대의 도장 작업 기간은 총 12일 정도가 소요된다.

항공기에 특정한 그림이나 사진, 이미지를 그리는 작업에는 래핑(Wrapping) 작업과 페인팅(Painting) 작업등 두 종류가 있으나 보통 5년 정도의 주기로 하게 된다. 항공기용 페인트는 십씨 영하 56도의 지상 12km 성층권 상공에서부터 40도를 오르내리는 열대지방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온도 변화와 대기권 운향 중 만나게 될 화산재나 자외선 등에도 이상이 없어야 하기 때

기용 필름을 디자인을 새겨 넣은 뒤 항공기에 붙인 것으로서, 래핑을 하면 수명이 3년 정도로 짧은 대신, 사진과 폭길이 설계하고 풍부한 표현이 가능하다. 항공기 동체에 붓이나 스프레이 또는 전기원리를 이용하여 페인트로 직접 그림을 그려 넣는 작업이 페인팅(Painting) 작업이다. 대한항공이 국내 최초로 2001년 3월부터 제주 관광 홍보를 위해 운항 중인 하르비 항공기가 이런 방식으로 작업한 경우이며, 제주를 상징하는 한라산과 하르방, 유채 꽃 등을 동체에 일일이 손으로 그려 넣은 것이다.

최근에는 항공기 도장용 도료의 발달, 래핑 기술 등 항공기 도장기술과 도장시설의 현대화로 인하여 항공기들의 모습은 더욱 화려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아울러 특별한 이미지를 새겨진 항공기는 승객들에게 친근감을 주면서 또 다른 여행의 재미로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항공기의 이미지나 색깔 등은 더욱 다채로워질 전망이다.

/김형래 ·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교수

행복한 속 채움

찬바람만큼 골목은 매섭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니 냉한 기운이 엄습한다. 골방엔 벌써 선웃는 손님들이 들어차고 좁은 홀에도 점심 손님들이 대어섯 기다리고있다. 덩그러니 놓여둔 난로는 제 기능을 상실했는지 차디차다. 벽에서 스며드는 냉기가 식당을 가득 메워 손님들은 호호 손을 비비지만 누구하나 춥다거나 난로를 켜야겠다는 생각을 않는다.

떨렁한 게 더 하다. 반기는 주인이 없다. 물 한잔 따라주지도 않는다. 부엌으로 가서 주문하고 제 손으로 물 받아 기다려야 한다. 요즘 같은 서비스 경쟁사회에 경을 칠 일이지만 누구하나 이집 시스템을 탓하지 않는다. 이게 싫으면 안 오면 그만이다. 그러나 오고 싶은 게 이집의 매력이다.

그건 칼국수 맛 때문이다. 주인 할머니의 손맛이 비결이다. 게다가 주문하고 금방 나오는 법도 없다. 국수를 썰고 익히는 기다림이 심장기를 더해서 맛의 절정을 이룬다. 그래서인지 이집에서는 빨리 달라고 조르는 사람이 없다. 느긋하게 기다리는 사이도 란도란 못 다한 이야기도 나누는 무언의 배려다. 이국도 큰 대접에 산더미만한 칼국수가 모락모락 김을 풍기며 나온다.

또한 국물에 대접이 넘칠 만

새해에 꾸는 꿈

한 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또 다른 한 해가 성큼 다가왔다. 세월은 무한한 우주에서 연속으로 이어지는 자연의 섭리이지만 인간은 무한한 세월을 일정한 간격으로 토막을 내어서 초, 분, 시간, 하루, 한달, 일년, 세기 등으로 매듭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세우고, 한 달의 계획은 월초에 세우고, 일년의 계획은 정초에 세우듯이 누구나 새해가 시작되면 갖가지 꿈이나 희망 포부를 밝힌다. 돈을 벌겠다는 사람, 건강을 다지겠다는 사람, 취업을 하겠다는 사람, 취미생활을 갖겠다는 사람, 가정의 화목을 이루겠다는 사람

등 각자가 가지는 꿈이나 희망은 제각각이다.

꿈을 이루든 못 이루든 꿈을 갖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동물은 꿈을 가질 수 없지만 인간은 누구나 자유자재로 다양한 꿈을 가질 수 있다. 꿈을 가지는 데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큰 부담을 끼치는 것도 아니기에 꿈을 이루는 거창하게 꿈다. 실패를 완전히 이루는데 실패했다 손치더라도 노력한 만큼은 뭔가 얻는 게 있다.

꿈을 이루기가 쉽지는 않지만 하나의 꿈을 지니고 노력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꿈을 갖게 되면 다양한 상상을 하고 꿈이 없을 때보다는 한층 더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가령 돈도 모으겠다는 꿈을 가지면 푼 돈이라도 아끼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게 되고, 건강을 다지겠다면 운동을 하거나 유증 흡연을 삼가게 된다. 비록 작심삼일로 끝내버린 꿈이라 할지라도 노력한 삼일까지는 조금이라도 얻은 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새해를 맞아 꿈을 꾸고 조그만 계획을 세워 한번쯤 도전하고 노력해 보는 것은 좋은 일이다. 꿈이 너무 크고 웅대하면 스스로 지치거나 포기하게 되므로 소박한 꿈을 가질 일이다.

한달에 책을 한 권 이상 읽는 다거나 사랑하는 이에게 편지를 한 통 이상 쓴다거나 또는 용돈을 좀 줄여 장기적인 주식형 편드를 하나 드는 것도 좋은 일이

다. 휴일에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도 괜찮고 부부가 같이 집안청소를 하겠다는 꿈도 좋다.

새해를 맞아 가족의 건강과 안녕, 행복을 소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꿈일지도 모른다. 여유가 생기면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가족이 같이 참석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즐기고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자기개발을 하고 거기서 더 자투리 시간을 생기면 남을 위해 봉사도 좀 한다며 삶에서 나름대로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새해를 맞아 소박한 꿈을 하나씩 갖고 정진해 보자. 열심히 살며 꿈을 이루려고 애쓰다 보면 자신도 몰라보게 성숙한 모습으로 변해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박정도 · 부산시 사하구

국운 상승하는 선진한국의 무자년 열리길

대통령 후보자 간에 혹은 정당 간에 지독한 네거티브 전략과 실종된 정책대결로 온 나라가 갈기갈기 찢기고 생체기가 났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희망찬 새해와 더불어 조금 있으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다. 새로운 대통령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겠지만 먼저 선거로 인한 국론분열을 통일시키는 게 급선무다. 반대자를 포용하고 정적이더라도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재는 적극 찾아가 삼고초려의 자세로 기용해야 한다.

지역 현역 화원은 과감히 배척하고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여 국민민복을 꾀해야 한다. 국민들

은 취업난과 물가고, 노후불안과 사교육비 증가로 큰 시름을 앓고 있다.

국민들이 가슴을 활짝 펴고 미래를 꿈꾸며 얼굴에 웃음이 들 수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은 낙관적이지 못하다. 주변의 열강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호시탐탐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다투고 물가의 어린이에 같은 북한은 핵무기와 군사력 증강으로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기업들은 반기운 정서와 과격한 노사분규로 투자를 주저하고 외국인인 한국의 정치상황이 믿을 수 없지 못해 투자를 꺼리는 실

정이다.

새로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소망과 미래 한국의 살아갈 길을 개척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선출되었다. 자칫 사리사욕에 물들고 당리당락에 휩싸이거는 영원히 세계의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만다. 대국적 견지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통일 정치를 해야 한다. 끼리끼리 어울리고 민생을 외면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다.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또 국민분열과 정파 간의 출혈 경쟁이 예상된다. 위정자들은 진정으로 나라와 백성의 안위와 행복을 살피야 한다. 국민이 행

복해야 국가도 번창하고 당달아 세계 속의 한국으로 발돋움한다. 그 어느 때보다도 대통령의 역할과 소명이 중요한 때이다.

무자년 새해에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온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한국을 더욱 발전시키고 국운을 상승시켜야 한다. 지도자가 잘 이끌면 우리 국민은 큰 자력을 발휘한다.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고 곧 선진국에 접어들다. 세계 일류 선진국으로 부상하여 세계 역사를 주도하고 태평성대를 꿈꾸는 위대한 코리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무자년 정초에 가져본다.

/이욱출 · 부산 사하구

<알고 먹는 수산물 코너> 글

바다의 우유 “굴”

굴8개면 하루철분 섭취 끝, 아연 풍부한 스테미너 식품



갑상선 이상을 예방하는 요오드와 성적 성장에 중요한 아연이 넉넉히 들어있어 미네랄의 보고(寶庫)로 통한다.

특히 ‘섹스미네랄’로 불리는 아연 함량은 모든 어패류 중에서 가장 높고 실제로 미국에서 성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굴을 다량 섭취시켰더니 절반이상에 가서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도 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굴은 바다 어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며, 먹으면 향미가 있고 보익(補益)하며 피부를 아름답게 하고 안색을 좋게 한다”고 적고 있다.

굴을 고를 때는 신선도를 최우선으로 해서 빛깔이 밝고 선명하며 유백색으로 광택이 있고, 맛을 보았을 때 바닷물 특유의 짠맛이 남아 있고, 굴 가장자리

에 붙은 검은 테두리가 짙고 선명한 것이 싱싱한 굴이라 할 수 있다. 또 알 굴(간굴)은 오물도 들리고 손으로 눌러보아 탄력이 있는 것이 좋다.

육질이 희끄무레하고 퍼져 있는 것은 오래된 것으로, 소금물에 담가 불려서 싱싱한 것처럼 판매하는 것이므로 잘 살펴서 사야 한다. 그리고 굴은 사서 빨리 먹는 것이 가장 좋다.

보관할 때는 통풍된 경우에는 10도 이하의 공기 중에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기간은 일주일(채취한 날로부터)을 넘으면 좋지 않다. 간굴은 10도 이하의 해수에 넣어 보관하고 6일 이상은 두지 않도록 한다.

굴 알이 큰 것은 ‘양식’ 이고 작은 것은 ‘자연산’ 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굴은 투석식(돌에 둘러 붙어 키우는 방식)

이든 수하식(줄에 꿰어 바다 한 가운데서 키우는 방식)이든 시설만 좋으면 바다의 플랑크톤을 먹고 자기 스스로 자라는 것이지 인공적으로 사료를 먹여 키우는 것이 아니다.

단지 굴의 크기의 차이는 서해안 돌 굴은 만조시에만 바닷물에 잠기기 때문에 섭취하는 플랑크톤의 양이 적고, 남해안 수하식 굴은 성장기간 내내 해수에 잠겨 있어 플랑크톤의 섭취량이 많아 알이 굵고 통통하며 영양도 풍부하다.

또 다른 잘못된 상식 중의 하나로 서양에는 달 이름에 ‘R’ 가 들어 있지 않은 때에는 굴을 먹지 말라는 말이 있다. 1599년 간행된 ‘버틀러의 식사지침’(Butler’s Dry Dinner)에 등장하는 말로, 5~8월에는 굴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또 이 시기는 기온이 비교적 높아 굴이 상하기 쉽고 식중독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 생굴로 먹을 때 주의를 하라는 경고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

/이훈수 · 해양수산과

어서 째방에 올려놓고 끓는 물에 데치듯 삶아내어야 쫄깃함이 살아난다. 미각과 시각을 위해 감자나 애호박을 넣는 게 일반적이다.

요즘엔 기계 면이 대신하고 있어 울퉁은 맛을 내지 못하고 있다. 수입산 밀가루도 혼탁하고 있다. 게다가 해물을 비롯한 다양한 재료들이 가세해 새로운 칼국수의 탄생시키고 있으니 손칼국수의 원형을 찾기도 점점 어려워진다. 식구들의 끼니를 위해 흥두께를 미시든 어머니의 손맛이 그리운 까닭도 그런 연유다.

국수 값도 손님이 알아서 계산해 주어야 한다. 고만다는 인사도 없다. 할머니의 정성어린 맛과 푸짐한 대접인심으로 인해 셀프의 수고쯤은 손님 뉘으로 남겨두어도 좋다는 무언의 약속이나 그다. 그래서인지 학생들과 직장나온 주부들이 주고객이었으나 요즘은 회사원들과 연인들까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맛의 가치와 셀프의 수고스러움을 기꺼이 교환해 주겠다는 애가다.

떡볶이와 콩유로 세상에 칼국수는 그영양학적 가치나 품위로 보아 그다지 환영받지 못할 메뉴다. 그러나 음식이란 만든지의 정성과 먹는 이의 사랑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최고의 대접을 받는 법이다. 칼국수 한 그릇에 행복한 속 채움을 하고 나니 매스틴 골목이 다시 살기위진다.

/이용호 · 선구동

안타까운 현실

지난해 사천 항공 우주 엑스포의 행사 가운데 하나인 항공그림 그리기 대회에 동생네 조카를 데리고 참석했다. 대회 전 날은 날씨가 흐려서 비가 오면 사천 체육관에서 한다고 했지만 우천에는 달리 아주 화창한 가을 날씨였다. 그래서인지 많은 학생과 학부모, 학원을 대표해서 참가하는 아이들을 응원하러 왔는데 학원차량들도 다소 눈에 띄었다. 동생네는 소풍가는 기분으로 아침에 김밥도 썼다.

항공기가 전시된 잔디밭에 앉아서 나눠주는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되 오후 1시까지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었다.

삶의 길잡이 명심보감

과거는 미래를 비추준다

原文：子曰 明鏡所以察形也 往者所以知今也。인사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밝은 거울은 모양을 살펴보는 바가 되고, 지나간 옛은 지금을 아는 바가 된다”고 했다. 거울이란 것은 얼굴을 보는 것이다. 얼굴에 불길한 것이 묻지는 않았는가? 또는 얼굴빛이 평화스럽지 못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다. 그래서 군자는 거울을 대할 때 마다 그 거울의 맑은 본성을 취해 얼굴에 비치는 거울처럼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여 세상을 비추는 것이다. 거울은 맑고 비어서 아무리 의식이 없지 마는 능히 만상(萬像)을 비추지만, 그러나 티끌이 끼어서 그 맑은 것을 가리면 비치는 힘을 잃고 만다. 그러면 거울의 맑은 것이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티끌에 가려졌을 뿐이다. 그 때를 벗기면 그 맑은 것이 도로 나타나서 전과 같이 된다. 거울은 소리를 거부한다. 그러기에 거울 속에는 동적이 없을 뿐 시간이란 것이 없다. 여성이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것은 다만 자기의 모습을 보기 위한 것 뿐 아니라 자기 어떻게 사람의 눈을 비칠까를 보기 위해서이다. 제 모습을 비추어 보는 마음의 거울이란 흐림과 맑음의 대담(大談)이다.君子不鑄於水而鑄於人. 물은 거울로 하는 경우는 의명만을 보

카도 엄마에게 “엄마, 다른 애들은 자기 엄마들이 대신 그려 주는데 이렇게 혼자 그리다가는 끝날 때까지 다 못 그리잖아...”라며 대신 그림을 그려 달라고 조르는 것이었다. 아주 울상인 아이를 보다 못한 동생은 어쩔 수 없이 크레파스를 집어 들었다.

남과 경쟁하여 어떻게든 이겨야만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이제 착탕들을 앞두고 있는 내 팔에 서로 이해하며 어울려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거든 참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으로 항공 그림 그리기 대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조금은 우울한 생각이 들었다.

/이현숙 · 사남면 월성리

사천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사천농협(조합장 김재동) 농가주부 모임(회장 정도연, 회원43명)과 사천읍부녀회(회장 안미화)는 지난 12월12일 사천농협광장에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사천농협측과 사천읍부녀회에서 배추 1400여포기와 양념값(시가 700여만원)등을 지원해 마련됐다. 이날 김장김치 300상자를 사천읍과 축동면 일부 세대중 어려운 이웃과 무의탁노인 등 마을별 5세대를 선정해 전달했다

사천읍기관단체장들의 불우이웃돕기

사천읍기관단체장협의회(회장 한대식 읍장, 회원수 16명)는 지난 12월13일 사천읍청사에서 관내 6세대를 선정해 쌀 10kg 6포, 라면 6상자, 우리농산물상품권 6매 등(시가 60만원)을 주변에 어려운 불우이웃들을 먼저 보살피고 도와 드리자는 뜻을 모아 전달했다.

불우이웃돕기 선형



영농식육점(대표 박범기·정영자)은 사천읍시장신바람대축제(추진위원장 신승수) 먹거리 행사 판매 수익금으로 쌀 10kg들이 30포(60만원 상당)를 마련, 사천읍부녀회(회장 안미화)에 전달했다. 기증받은 쌀은 월 2번씩 실시하는 사랑의 반찬나누기 행사와 더불어 관내 불우세대인 선인리 김모씨 외 29세대에 전달했다.

정동면

사랑의 나눔을 통한 온정의 손길



정동사랑회(회장 박인열 외 25명)는 지난 12월14일 정동지역 초등학교 재학생 중 부·모 결손가정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정동면 대곡리에 정모 학생 외 1명에게 각각 현금 25만원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어 불우한 환경에서도 따뜻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뒷바라지한 보호자들과 저축식사를 함께했다.

정동사랑회에서는 2005년부터 매년 연말을 기해 사랑의 나눔행사를 실시해 정동면 지역발전에도 동참하고 있으며, 앞으로 나눔을 확대 실천할 계획이다.

정동면자원봉사사업협의회 사랑의 김장나누기사업 실시

정동면자원봉사사업협의회(회장 오승환 외 34명)는 지난 12월12~13일 정동면 학촌리 이옥수 회원 집에서 배추 300포기로 김장을 담궈 독거노인·장애인에 대해 50세대에 전달, 인정이 넘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

사남면

2007년 사남면 자연보호경진 대회 개최



사남면자연보호협의회(회장 윤유덕)주관 2007년 사남면 자연보호경진대회가 지난 12월21일 오전 10시 30분 사천학생여영수원(구 가천초등학교)에서 사남면자연생존 23단체(참석회원 250명)와 김주일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이번 행사는 대통령선기로 임정이 연기돼 추운 겨울에 개최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단체에서 참여했다. 올해는 사천시 환경정책에 따라 폐기물쓰레기 포대 500개를 준비해 각각 수거한 쓰레기를 포대에 담아 정리해 지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사남면 남녀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환경정화활동을 겸해 폐비닐 및 민방약품수거, 각종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해 자연보호경진대회 의미를 더욱 빛나게 했다. 이날 자생단체 상호간 열띤 경쟁을 펼친 결과 1등은 남녀의용소방대, 2등 남녀농협경연, 3등 생활개선회가 차지했다.

연말연시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 전달

연말연시를 맞아 추운 날씨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개인과 여러 단체에서 사랑의 성금이 전달됐다. 가천마을 회동사(영관 스님)에서 김장김치 200봉지, 초전마을 박수부(초전 농업인)씨가 김장배추 200포기를 독거노인 및 한부모 가정에 전달했으며, 사남면 기관협의회(회장 최진수), 사남면 생활개선회(회장 최종관), 사천향교 여성유도회(회장 구영희) 각각 10만원, 한주빌라트부녀회 30만원, 한우축산계 10만원, 하동마을 12만원, 김영규(가천마을)씨가 10만원 등 여러 단체에서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해 어렵고 힘든 가정에 성금을 전달했다.

또한 최진평(사촌저주, 축산업)씨는 매달 쌀 2포(20kg)를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 전달을 하고 있어 주위의 이웃들에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용현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

연말연시를 맞아 용현면 봉사단체들의 어려운 이웃돕기활동이 활동이 줄고 있다.

용현면 청화회(회장 박상일)는 연말연시를 맞아 관내 거주하고 있는 생계가 어려운 독거노인 및 장애인 3명을 방문해 세대당 2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며 이웃의 따뜻한 정성을 나눠 주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다.

용현면 자연보호 경진대회 성공 개최

용현면 자연보호협의회(회장 박학진)는 지난 12월27일 용현면 송지리 해안도리반 일대에서 제7회 용현면 자연보호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7개단체 110여명은 팀을 나눠 자연정화활동을 펼쳤다. 회원들은 용현면의 새로운 관광지가 될 해안도리반에 버려진 쓰레기 약 3톤을 수거, 앞으로 용현면을 찾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좋은 인상을 주게 됐다.

또한 자연보호 경진대회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 내실 있는 자연보호운동 정착 및 자연의 소중함과 참 뜻을 널리 알리고, 면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축동면

남강댐 주변지역 축동면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축동면사무소는(면장 송근호)는 지난 12월3일 '남강댐관리단'에서 댐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4항'에 따라 댐지역주민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관내 거주하는 중·고·대학생 중 14명을 선발해 장학금 570만원을 지급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했다.

곤양면

제 363차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



곤양면 주관 제363차민방위의 날 시범훈련이 지난 11월23일 오후 2시 곤양종합시장에서 시행됐다. 이날 이장단, 새마을협의회, 적십자봉사회, 의용소방대를 비롯한 100여명의 곤양면민이 참가해 훈련에 임했다.

곤양면 시나리오(곤양시장 피폭에 따른 화재진화 훈련)상황에 따른 신속한 대처와 사천소방서, KT, 한국전력, 보건소, 백경건설 등에서 장비를 동원, 생동감 있고 내실 있는 훈련이 이루어졌다.

사랑의 김장담그기

곤양면 농업여성경영인회는 지난 12월6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를 실시했다. 배추 50포기로 정성껏 담은 사랑의 김장은 곤양면 소재 경로당에 전해져 훈훈한 사랑을 나눴다.

곤명면

사랑의 김장나누기로 정(情)을 나눠



곤명면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2월3~7일 사랑의 김장나누기행사에 팔소매를 건어붙였다.

마을별로 기증을 받은 배추 250포기를 곤명면 새마을부녀회원 20여명이 직접 김장을 담가 면내 저소득층 및 어려운 가정 50세대와 나눠 겨울철 추운날씨에도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 깊은 행사가 됐다.

서포면

대구 달서구 진천동 직원과의 M·T 개최



서포면은 대구 달서구 진천동과 자매결연 체결 이후(2006년 12월15일) 민간교류를 계기로 지역특산물 및 사천시 관광 홍보를 위한 직원간 상호교류를 위한 직원M·T를 다목적체험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8일 자매결연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직원 간에도 상호교류를 통해 우의를 다져 보자는 언급이 있어 이루어지게 됐다. 이날 참석한 서포면 직원들과 진천동 직원 15명(동장 김태식)은 서포 특산물인 석화와 참다래, 단감 등을 함께 먹으면서 첫날을 보냈다. 이튿날은 갯벌체험과 해로·육로탐방을 하고 다음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자생단체 친목과 화합 한마당 열려

자생단체 화합 한마당 행사가 지난 12월27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각 단체장을 비롯한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자생단체가 행정에 많은 협조를 한 것에 대한 노고에 보답하고, 자생단체 간 상호유대 및 친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회원들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서포면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동서동

2007년도 동정결산보고회 개최



지난해 12월 26일 오후5시에 삼천포대학교내 유림선실에서 동서동 조직원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07년도 동정주요추진사항보고회와전 조직원총회의 친목과 화합을 바탕으로 동정결산보고회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2007년도 동정정주요추진보고회 및 사업현황 등을 주민에게 보고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

또한 관내 7개 단체(봉정협의회, 새마을회, 체육회, 서부상가번영회, 동양농동(주), 부흥건설(주), 맨포링자산관리(주))에서 총600만원의 장학금을 출원해 학업성적 우수자와 모범생들에 대한 1인당 20만원씩 3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이웃사랑 실천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온 박태기(동동351-3)씨가 선진동민상으로 선정돼 동서동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30만원과 상장을 수여받았다.

선구동

선구동! 나누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선구동 10통장(강동완)이 지난 12월3일 이불 10채 등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관내 독거노인 및 소녀소년가정을 위해 선구동주민센터에 기탁하는 것을 시작으로, 6일은 선구동이웃사랑회(회장 박윤리)가 펄포수집, 바자회 개최 등으로 모은 수익금을 좌동동 노연 외 4세대를 방문, 연탄아궁이 보수와 겨울철을 각 100장씩 직접 전달하는 등 연말연시 이웃사랑의 정을 나누는 온정의 손길이 줄고 있다. 또, 선구동 자원봉사회(회장 윤덕이) 회원들도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실시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독거노인 등 관내 40세대에 김장김치 300포

기를 전달해 매년 김장나누기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선구동 중앙시장 의용소방대(회장 김영호)는 관내 어려운 독거노인 40여명을 모시고 광양제철과 온천 등을 다녀오는 효도관광을 실시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그밖에 선구동 12개 자생조직단체 회원들은 2007년 선구동 혁신사업인 '선구동 복지패밀리제'와 연계해 자체적으로 이웃돕기행사를 추진하고 있어 이번 선구동의 겨울은 사랑온도가 뜨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서금동

태안반도 기름유출 현장 돕기



동서금동 각 조직단체장(주민자치위원장 박명철 외 8명)들은 최악의 기름유출로 근심에 빠져있는 태안반도 현장에 기름유출 방제작업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지난 12월13일 긴급회의를 갖고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한 방제작비를 구입해 현지로 보내기로 결의했다.

단체장들은 기름 닦는 걸레 300kg(시가 50만원상당)을 구입해 현지로 자원봉사를 떠나는 관내 어업단체 회원 편으로 보냈다.

비록 큰 비용과 물자는 아니지만, 해안가를 끼고 있는 같은 어민들의 생활 터전인 바다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동서금동 조직단체원들의 정성을 담아 더 많은 물자와 인력을 지원하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동주민센터에 이름모를 독지가 쌀 기탁



지난 12월10일 동서금동 주민센터에 쌀 20kg짜리 8포대가 이름모를 독지가에 의해 전달됐다. 어렵게 사는 독거노인과 이웃에게 조그만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한사코 신분을 밝히지 않고 지인을 통해 쌀만 기탁했다.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이 독지가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매년 경로당이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선행을 펼쳤다.

연말연시가 되면 일회성 생색내기 거저 실제로 주위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씁쓸함을 안겨 주는 요즘 따뜻한 마음을 가진 독지가로 인해 주위에 귀감이 됐다.

벌용동

주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민여러분! 벌용동(동장 강호천)은 내년에 '진정한 주민자치'라는 슬로건으로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학습센터 운영과 어려운 계층의 사회복지 확대, 주민숙원과 지역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꽃단지 조성 및 힐스도록 하겠습니. 새해를 맞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길 기원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연말 불우이웃돕기 손길 잇따라

연말을 맞아 벌용동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송림건설(대표 이경호)은 지난 12월24일 백미 25포(20kg)를 동서주민센터에 전달했으며, 차평근(발리동 거주)씨가 매일 백미 10포(10kg)를 기증해오고 있다.

그외에도 동와광고(대표 장문식)에서 30만원, 벌용동 동물소 소리누리(단장 황돌선)에서 20만원, 13동 주민일동이 15만원, 와동미를 주민일동이 10만원, 28동 주민일동이 20만원, 성은비룡아파트 주민일동이 10만원, 비룡광장타운 주민일동이 10만원, 국민장어(대표 김민갑)에서 5만원, 발리주공아파트 205동 205호 김경용씨가 3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벌용동청소년지도협의회 봉사활동 전개

벌용동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이남우)는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 선도를 위해 지난 12월부터 주2회 야간 순찰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다. 협의회는 가드캡틴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소용을 유도하고, 학교 주변과 공사 등 취약지역을 집중 순찰하는 등 청소년 탈선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향촌동 대형농기계친목회 연말 이웃사랑 실천



향촌동 관내 농업인 모임인 대형농기계친목회(회장 김영삼)는 연말을 맞아 회원들이 직접 경작한 백미(10kg 22포)를 관내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증했다.

어려운 이웃을 도움 목적으로 회원들은 해마다 관내 휴경지를 직접 경작하여 쌀, 배추 등을 연말 때면 위문, 훈훈하고 따뜻한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향촌동 자연보호 경진대회 개최

향촌동 자연보호협의회는 지난 12월21일 오전 11시 모레마을 물량장에서 향촌동 자연보호경진대회를 개최했다. 8개 조직단체회원 110여명이 참여해 평소 관광객과 낚시꾼이 무단으로 투기한 불법쓰레기를 일제히 수거했다. 이날 행정위주에서 벗어나 조직단체회원들의 내고장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앞으로의 다짐과 회원 상호간 화합을 다지는 알차고 뜻 깊은 행사로 치러졌다.

남양동

진주·삼천포농악 제18회 지방발표회 가저



진주·삼천포농악보존회 주관 제18회 지방발표회 '남양열두거리제'가 지난 12월16일 남양동 임내마을 숲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5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길놀이, 당산제·의식굿, 남양초·중등학교 농악마당, 모듬북과 오카리나 협연, 농악관공, 파방 등 다채롭게 진행돼 참석한 주민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번 진주·삼천포농악의 제18회 지방발표회 '남양열두거리제'는 옛 조상들이 물려준 훌륭한 전통문화를 잘 보존함은 물론 지역민의 생활속에 살아 숨쉬는 문화로 거듭나고 또한 사라져 가는 지방문화의 현대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사천에서 종로학원 강의 듣는다



관내 고등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인터넷 강의개설 협약서에 김수영시장과 김이종 서울종로학원장이 서명했다.

사천시는 지난 12월 24일 시청 6층 상황실에서 사천시(시장 김수영)와 서울종로학원

문 입시학원인 서울종로학원 강사들의 강의를 직접 들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사천시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 수강 희망자 3학년 143명을 신청 받아 학생들이 우선 올해 종로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대입입시 정보는 물론, 종로학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재로 최고 강사진의 명강의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게 됐다.

인터넷으로 종로학원 강의를 직접 듣고자 하는 학생은 연간 240만원을 부담해야 하나 사천시 지역 학생은 이번 협약으로 연간 30만원이면 누구나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과의 교육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글로벌 시대에 맞춰 지역 학

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종로학원에 상호교류를 제외한 결과 체결됐다.

특히 사천시 지역 수험생들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인 논술교사를 대비해 종로학원 강사들이 직접 사천을 찾아 직접 지도한다.

또 전국모의고사와 월례교사, 핵심체크 등 정기적인 평가와 함께 e-class안내 설명회(인터넷 동영상 수능강좌), 심층 면접자료 제공, 대학별 논술강의, 입시설명회 등 종로학원의 모든 교육 내용이 제공된다.

사천시 관계자는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인재육성시책으로 2008학년도 서울대학교 6명, 연세대학교 1명 등이 수시합격했다”며 “이번 e-class협약이 우수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해 사천시 교육발전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천시, 원어민 교사 지원 확대



문선초등학교에 배치된 원어민 교사와 학생들이 즐겁게 영어수업을 하고 있다.

사천시는 2008년 5억원의 사업비로 11명의 원어민 교사를 지원해 관내 전 지역 초·중학교에서 원어민 교사의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시에서 2명을 지원하고 도교육청에서 2명의 교사를 지원해 시범운영한 결과 학생들이 영어에 지속적인 관심과 자신감을 가져 올해는 확대 지원키로 결정했다. 원어민 교사는

사천교육청 영어 전문 장학사가 직접 인터뷰, 면접시험을 거쳐 선원해 관내 전 지역 초·중학교에서 원어민 교사의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구)사천청사 본관을 영아학교(마을)로 운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학부모, 교육관계자, 특히 초·중학교에서 소규모 시설로 영아학교(마을)을 운영하기

보다 직접 원어민교사와 학생들이 생활하는 것이 언어구사능력이나 외국문화 체험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학교마다 원어민 교사 지원을 요구함에 따라 내년부터 확대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원어민 교사들이 한국생활에 빠르게 적응하고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내년 3월 중에 이틀간 코디처와 함께 교육청에서 ‘한국생활 관련 강의와 한국에서의 영어교육에 대한 강의’ 등을 주제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할 계획이다.

사천시는 원어민 교사가 배치됨으로써 학교 영어교육이 심화되고 무분별한 해외어학연수로 인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미국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심화 학습으로 연계돼 글로벌 인재 육성의 기반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사천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제 도입

사천시는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간이전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정산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천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제를 올해 1월부터 도입 본격적으로 시행 한다.

보조금 결제전용카드제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는 민간단체에 대해 사업별 계좌 개설과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보조금 카드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의 집행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정산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시에서는 보조금 교부 시 결제전용카드 사용조건을 붙여 사용의무화하기로 했으며, 이제 도입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금집행의 불신해소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카드사와 제휴 계약을 통해 카드 사용액의 일정부분(0.5%)을 시의 발전기금으로 제공받기로 해 세외수입 증대 효과도 기대 된다.

사천시, 올해 당초예산 3,598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복지 지원 확대

사천시의 올해 당초예산은 3,598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작년 당초예산보다 285억원(8.6%)이 증가한 것이며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217억원, 특별회계 381억원이다. 일반회계 예산은 분야별로 분석하면 지방세 수입은 308억원, 세외수입 315억원, 지방교부세 1,437억원, 재정보전금 97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1060억원으로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 비중이 19.4%이며 의존재원이 80.6%이다.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604억원, 법정 및 필수경비 290억원, 사업예산 2274억원, 예비비 등이 499억원이다.

올해는 예산편성을 위한 총재원 규모는 증가했으나 법정·의무적 경비의 증가와 기초노령연금 등 국가 복지정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 경직성 지출 소에도 증가하는 추세로 시의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가용재원은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에는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성과관리를 강조하는 사업예산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해로서 시에서는 한정된 재원 범위내에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계획성을 확보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 재원배분에 주력했다.

올해 예산 편성 내용을 주요 사업 분야별로 살펴보면

▶ 사회복지 분야에 모두 693억원이 투입되는데 이중 장애인 복지지원이 43억원, 보훈 및 국가유공자 지원 14억원, 기초생활보장 260억원, 실업해소 및 일자

리 창출 6억원, 노인복지 증진 181억원, 여성 및 보육 지원 133억원, 청소년 육성 19억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15억원, 기타 22억원 등이다.

▶ 관광 및 체육분야는 170억원으로 지방생활체육시설 확충 33억원, 체육시설 관리 및 체육행사 28억원, 문화예술행사지원 17억원, 문화재 보존 및 전승 25억원, 관광기반조성 53억원, 기타 14억원이다.

▶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는 244억원으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28억원, 중소기업육성지원 24억원,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72억원, 신재생에너지 보급관리 10억원, 투자유치 및 첨단산업 육성 91억원, 기타 19억원 등이다.

▶ 지역 SOC 확충사업은 373억원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140억원, 소규모 지역개발 및 하천, 농업기반정비 85억원,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120억원, 상하수도 정비 28억원 등이다.

▶ FTA에 대비한 농업구조개선 및 경쟁력 제고사업은 총 165억원으로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21억원, 친환경농업육성 16억원, 농업전문인력 육성 및 쾌적한 농촌생활환경개선 14억원, 쌀산업 육성 52억원, FTA 극복활력화 사업 36억원,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21억원, 기타 5억원 등이다.

▶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양수산업은 모두 150억원으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12억원, 어민소득증대 지원 43억원, 어촌종합개발 및 정주기반 조성 82억원, 기타 5억원 등이다.

서포 80리 벚꽃길 푸른경남상 수상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결실 맺어



서포 80리에 활짝핀 벚꽃길 풍경

사천시 벚꽃연합회(회장 김경경)는 80리 벚꽃길 조성의 공로를 인정받아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른경남사업의 민간부문 최고의 상인 2007년 푸른경남상 조성부분을 수상했다.

지난 1991년 예뻐한 지역사랑 마음을 한데 모아 서포면 동인회를 주축으로 11개 지역모임이 뭉친 벚꽃연합회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지방도 58호선 등 면내 17개소에 벚나무 2만 5150본을 심고 가꾸어 해마다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는 등 사천시의 소중한 관광자원으로 조성했다.

또한 매년 자체 식목일 행사를 실시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벚나무 식재를 통한 주민 화합 도모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밖에 푸른경남상 수상으로 벚꽃연합회가 조성한 벚꽃 80리 길이 한그루의 나무

도 소중한 자원이라는 시민의식 전환의 계기 마련과 함께 그동안 벚꽃연합회의 숨은 노력이 널리 알려져 지역사랑 실천의 모범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0일간 펼쳐지는 거침없는 문화대작전

뮤지컬 오디션 공연안내

문화관광부는 '문화도시' 운동의 일환으로 '수능 후 100일 문화대작전'을 마련했다. '문화대작전'은 정부와 82개 국립기관 및 단체, 기업이 협력해 수험생에게 대학 입학 전까지 100일 동안 다양한 문화예술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사천에서 공연되는 뮤지컬 '오디션'은 출연배우가 직접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는 신개념 밴드형 뮤지컬이다. 하이 서울 페스티벌 및 콘서트에 참가하려는 젊은 밴드의 이야기가 주된 소재로 펼쳐진다. 정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스톨, 스톨임프랄 여섯 청춘의 꿈과 사랑 이야기를 담아낸다. 배우들이 직접 라이브로 연주하며 노래하는 이 공연은 밴드의 이야기를 다루는 만큼 극중 다양한 형식의 콘서트 장면을 연출해 밤으로써 라이브 음악의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 공연 안내 -

- 일시 : 2008. 1. 22(화) 15:00 / 19:30
- 장소 : 사천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입장료 : 무료
- 주최 : 문화관광부
- 주관 : 사천시, (사)전국문화회관연합회
- 후원 : LG전자시스템어컨전문점(주) 창성공조기계 관인엔텍
- 문의 : 사천시문화예술회관(055-831-2460 ~ 3)

평생교육과 학습이 지역을 살린다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발표됨에 따라 각 대학의 수시모집 최종합격자 발표가 뒤따르고 있다.

사천시내 고교에서는 서울대학교 수시 1차 전형에서 9명의 합격생이 나왔고, 2차 면접과 수능능력시험 등급 시정 등을 거쳐 총 6명의 최종합격자를 배출했다. 개인과 학교는 물론 우리 고장의 영광이요 자랑스러운 것이다.

지금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과 비례하는 글로벌시대이며 도시의 경쟁력이 교육에 있는 시대이다.

사천시는 올해를 새로운 사천 건설의 원년으로 삼고 첨단산업 육성과 활기찬 지역 경제, 건강하고 풍요로운 복지 사회 건설, 테마와 낭만이 있는 도시 개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통해 '푸른 바다, 푸른 창공' 잘사는 사천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역 발전의 기대 못지 않게 아쉽고 부족한 것은 지역인의 유구인 교육과 문화의 질적 향상이다.

특히 일부 학부모들은 우리 지역에 명문학교 즉 우수 고등학교가 없다고 불평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지역 고등학교의 2008학년도 대학입시 합격자 현황을 보면 그러한 말은 이제 무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단지 일에 찾아온 것이 아니다. 사천시가 '지역을 살리는 길은 교육을 살리는 길'임을 인식하고 지역 발전에 상응하는 교육 발전을 위해 우리 지역 학교에 성적 우수 학생 진학 유도로 우수 인재 육성과 활기찬 지역 경제, 건강하고 풍요로운 복지 사회 건설, 테마와 낭만이 있는 도시 개발,

등에 다른 시·군보다 훨씬 많은 교육경비를 지원한 성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라 본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도 지역 사회 발전에 부응하는 교육을 위해 '지역발전 동력을 주도하는 사천교육'의 슬로건을 걸고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로 지혜를 모으고 함께 책임지는 교육 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학교 울타리를 허물고 지역 사회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교육 행정 역량을 강화해 가고 있다.

특히 급진에는 3Action(행동) 운동(안하려고 하는 것은 하게, 안된다고 하는 것은 되게, 없다고 하는 것은 있게)과 창조적 혁신으로 2007학년도에는 예년에 볼 수 없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한정된 지면이라 우수한 실적 몇 가지만 소개하면 먼저 지역 교육 환경 개선과 교육 공동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천시와 지역사회와 교육 발전을 위한 협약 체결과 그에 따른 조례가 제정 되었으며, 이어서

한국수자원공사 사천권 관리단과도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학교 실적으로 먼저 체육분야에서 제36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삼천포초등학교 농구부가 21년 만에 금메달을 획득하였고, 경남 동아리농구대회에서 초등·중등부에서 우승하여 농구 도시 사천시의 명성을 떨치게 이어 삼천포중학교 수영팀이 제26회 대통령배 전국 수영대회에서 우승하였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남양초등학교가 개천예술제 풍물대회와 남양선비 문화축제 민속놀이 풍물대회에서 전국 장원을 하였고, 용남중학교는 제19회 전국 청소년 탈춤 경연대회에서 처음 출전하여 은상을 획득하고, 용산중학교 합주부는 제3회 교육감배 합주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과학 분야에서는 사천여자중학교가 제1회 경남 천주사랑 UCC 작품전시대회에서 대상, 제15회 경남 탐구올림픽 대회에

서 관내 학생들이 금2, 은2, 동3을, 제7회 학교홈페이지 경연대회에는 금1, 은1, 동4로 6개교가 학교표창을 수상하였다.

그 외에도 삼천포초등학교가 전국 아름다운 학교 가꾸기 대회에서 대상, 서포초등학교는 경상남도교육청 주최 제1회 천절 가장 선도적인 지역을 해준 덕분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그리고 현재 사회는 매우 급변하는 지식 정보화·디지털 사회이다. 동시에 교육도 급격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기존의 학교 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하던 전통적 교육 방식에서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되는 평생교육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자 사천시는 교육 복지 분야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를 위한 평생학습 도시 지정에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2008년도에 '평생 학습 도시' 지정에 발의 신청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12만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에 대한 갈증 해소는 물론 신뢰와 사

선도하는 교육의 장이요, 지역민이 기대하는 명문학교로 발돋움 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

이 모두는 사천시가 교육경비 지원, 인재육성 자금 조성, 각급 학교 운동선수 육성 및 교육 환경개선 등 도내 지자체 가운데 가장 선도적인 지역을 해준 덕분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그리고 현대 사회는 매우 급변하는 지식 정보화·디지털 사회이다. 동시에 교육도 급격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기존의 학교 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하던 전통적 교육 방식에서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되는 평생교육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자 사천시는 교육 복지 분야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를 위한 평생학습 도시 지정에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2008년도에 '평생 학습 도시' 지정에 발의 신청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12만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에 대한 갈증 해소는 물론 신뢰와 사

람을 뽐낼 수 있는 명품 교육 도시로 급속히 변모할 것이라 기대된다.

이상과 같이 초·중·고등학교가 명문학교로 변하고 도시가 명품 교육 도시로 된다면 인근 도시 학교로 유학 가는 학생, 자녀 교육을 위해 인근 도시로 진출 하거나 인근 도시에서 잠시 동안 통근으로 인한 물심양면의 부담도 사라질 것이다.

이제 경남은 물론 전국에서 떠오르는 지역인 사천시는 대규모 공단 조성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공장 부지난을 겪을 정도로 국내의 기업들의 입주와 가동이 본격화 되고 앞으로 몇 년 시시 1만여 세대 APT가 들어서면서 인구 유입의 가속화에 따라 학생수도 수용이 어려울 정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업들의 입주와 가동에 따른 취업자 찾아오는 직장인들이 자녀교육을 위한 명문학교가 없다는 이유로 전입을 기피하거나 인근 지역에서 통근하는 격정일랑 마시고 명문학교·명문도시의 사천으로 마음 편히 오시길 간곡히 권정해 둔다. /최정기 사천교육청교육장